

CITY OF ANGEL

Winter, 2019
Vol.2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

|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 발행일 | 2019년 1월 30일
|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 발행·편집인 | 이호경 | 편집장 | 김용하 | 편집위원 | 강정영, 김순동, 김홍범
| 포토그래퍼 | 하제연 | 디자이너 | 신혜민 | 디자인 | 한섬컴 (대표 김우환) | 인쇄 | (주)대원당 (대표 이창호)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전화. 053-602-7307 팩스. 053-602-7306
이메일. daeguangel@naver.com



1004 PHOTO
PROJECT





HONORS

변화를 꿈꾸는 방촌! 변화를 만드는 태왕!

태왕이 방촌의 가치를 높입니다!

초역세권

인공지능
(AI)접목

브랜드
파워

최신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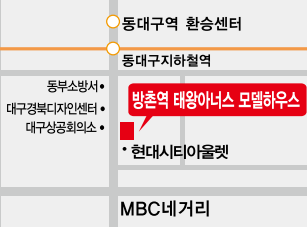
K2
개발비전



*본 홍보물의 CG에 표현된 분양물의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의 사진, CG, 그래픽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25일
대공개

모델하우스 약도



현장 약도 (구 오비맥주)



빠르고 똑똑한 명품아파트

방촌역
태왕아너스

NAVER 방촌역 태왕아너스

시행 **주도원주택개발**

시공 **태왕**

지음관리 **하나자산신탁**

문의 10531 **746-3330**

연구개발 특화단지, 쾌적한 정주환경 등을 갖춘 대구경북 혁신성장거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구
현황

위 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사업기간	2008 ~ 2022년
사업면적	1,479천㎡
시 행 자	(주)포항융합티앤아이
시 공 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분양시기	2019년 상반기 분양공고 예정

입지
여건



주요
시설

환경해지역본부, 식물백신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가속기 기반 신약신소재클러스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더 큰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투자분양문의 |
T 시행사 : 포항융합티앤아이 053) 759-8743

KYOBOKO 교보증권

KOREA trust 코리아신탁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대성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부족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몽골 GEEP / 나란 / 만다흐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카자흐스탄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



- 가스보일러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 배기통 연결부 꼼꼼히 확인 / 환기구는 반드시 개방 / 6개월에 한 번씩 안전점검 꼭 받기

Contents

2019년 새해 특집



- 6p [신년사] 적토성산 풍우홍인! 이호경 회장
- 7p [감포 일출사진 기증] 박익진 감포바다 사진 작가
- 12p [새해특집 인터뷰] 대구FC 구단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16p [2019년 ACL 계 쫓겨라!] 김대원선수와 함께하는 새해인사

Angel with Us [엔젤브리핑]



- 22p [다이아몬드엔젤 列傳] 백서재 (주)대영전자 대표이사
- 26p [1004포토 프로젝트] 하제연 엔젤 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
- 32p [새해 첫 엔젤가입식] 남호영 (주)청우이엔지 대표
- 34p [Unsung Angel] 김운찬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크 부문장
- 36p [엔젤이 온다!] 엔젤포토존
- 39p [엔젤가가 간다!] 엔젤가가 방문한 엔젤
- 40p [축구대구! 엔젤대구!] 2019년 엔젤신년교례회 성료
- 42p [우리는 챔피언] 대구FC 축승회, 엔젤 함께 하다
- 44p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엔젤, 대구FC 첫 우승을 함께 하다
- 51p [엔젤클럽 SNS 타고 훨훨] 유튜브, 밴드, 카페, 앱 등 활성화
- 54p [엔젤 축구에(愛)빠지다] 엔젤, 대구FC스폰서축구대회 준우승
- 58p [엔젤수상소식] 엔젤클럽 금북문화재단 특별상 수상
- 60p [엔젤, 의료계 확산] 지역 대학병원과 잇단 MOU체결
- 62p [ANGEL LIFE] 엔젤동정

대구FC 리포트



- 70p [2019 시즌 개막] 3월 9일 제주와 홈개막전!
- 71p [2019 대구FC 일정] K리그 및 ACL 일정
- 72p [대구FC 전지훈련소식] 남해, 중국 쿤밍 · 상해 전훈 이모저모
- 73p [대구FC 새얼굴] 이병근 코치, 안드레 사단 합류,
- 74p 세징야 + 에드가 콤비와 재계약, 제주 정태욱 영입
- 76p 젊은태양 대구에 뜨다!(신인선수)
- 80p [대구FC 선수 프로필] 2019년도 대구FC 태양의 전사

Half time talk



- 88p [축구의 나라를 가다] 브라질 편(안용모 엔젤)
- 94p [엔젤인문학] 킨 과 대구FC
- 96p [특별기고] 대구경북연구원 김기철 연구원
- 100p [엔젤기고 최종] 자산관리 노하우(김규정 엔젤)

Angel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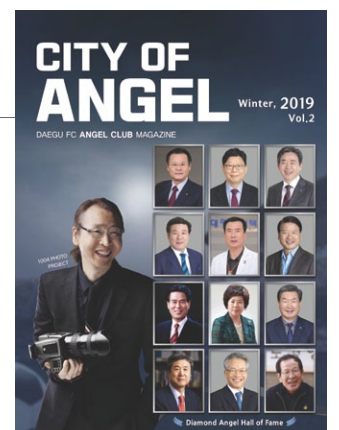
- 102p [다이아몬드엔젤] 영원한 대구사랑 다이아몬드엔젤
- 104p [엔젤명단] 시티즌 오블리주! 오늘의 엔젤

Cover story .

Winter, 2019

이번 호에는 대구축구전용구장 내 '엔젤 명예의 전당'에 전시될 다이아몬드엔젤(연 1천만원이상 후원)과 '1004포토프로젝트(명예의 전당 용 엔젤 사진 촬영)를 진행하고 있는 하제연엔젤(왼쪽)이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다이아몬드엔젤 사진은 가입 순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하제연 엔젤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촬영한 ('천사포토' 표시)사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게재 순입니다. (왼쪽 윗줄부터)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진영환 삼익THK회장(천사포토), 조종수 서한대표(천사포토), 노기원 태양이앤씨 대표, 정태호 대영코어텍 회장, 김동구 금북주 회장(천사포토), 정태일 한국OSG 회장, 진덕수 대흥코스텍 회장, 이익재 세신정밀 회장(천사포토), 이충곤 SL 그룹 회장, 백서재 대영전자 대표(천사포토), 권원강 교촌그룹 회장





적토성산 積土成山 풍우흥언 風雨興焉

엔젤 모여 큰 산 이루니, 큰 바람 일어 대구를 바꾸네

2019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산으로, 또 바다로 가서 일출을 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는 합니다. 저는 엔젤사무국이 있는 호텔 인터볼고 대구 옥상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명산 팔공산이 멀리 보이고, 가까이는 금오강이 흘러 새해를 맞기에 그만이었습니 다. 거기에서 대구의 관문인 영남제일문이 장대하게 서 있고, 화랑로 건너편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나라를 지킨 광재우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것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바로 엔젤의 정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구로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대구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대구하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다' 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대구 어느 식당으로 모셔가더라도 '정말 맛있는 집' , 또 어디를 가더라도 '뜻 깊은 장소'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 분들도 정말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한 번 더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엔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키워 나가야할 정말 소중한 콘텐츠와 정신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14일 열린 '대구FC FA컵 우승식 고맙DAY' 는 엔젤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김남호엔젤이 장미꽃을 선사하고, 하제연엔젤이 포토존을 마련해 사진촬영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안에서는 문준기 엔젤이 수제맥주로 대구경북의 맛을 선사했고, 우승식에서는 모든 분들이 엔젤클럽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에도 기념촬영과 함께 이화선엔젤이 준비한 선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간에 모인 엔젤을 보면서 마치 '커다란 산' 같은 힘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엔젤 한 분 한 분 모여 큰 산을 이룬 것입니다. 순자(荀子)의 권학(勸學)편에 나오는 글은 이같은 엔젤현상을 설명하는 데 제격입니다.

적토성산積土成山, 풍우흥언風雨興焉 /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거기에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적수성연積水成淵, 교룡생언蛟龍生焉 /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생겨난다

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 엔젤이 모여 산을 이루니, 그 속에 축구사랑의 바람이 불고 대구사랑이라는 단비가 축축이 내려 대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엔젤의 사랑이 모여 호수를 이루니 거기에 수많은 엔젤, 엔시오 태어나고, 대구사랑과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이제 '대구 하면 별 볼일 없는 도시' 가 아니라 '새로운 시민정신을 만들어 낸' 위대한 도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권학에 나오는 문구로 새해 덕담을 마무리 할까합니다.

고부적규보故不積跬步 무이지천리無以至千里 /만 보라도 내딛지 않으면 천리를 갈 수 없고
부적소류不積小流 무이성강해無以成江海/ 작은 물줄기 모이지 않으면 강,바다가 생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DGB아레나(대구축구전용구장)를 엔젤과 엔시오 채우자는 '만원의 만원(滿員)' 도 그 목표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함께 걸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 호 경 



대구FC와 엔젤, 세상의 오메가 되라!

‘고향 경주 감포바다 사진작가’ 박익진, 엔젤홍보사진작가로 위촉
축구전용구장 엔젤룸에 일출사진 2점 기증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주 감포(甘浦) 새벽 바다.
두툼한 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릴 듯 손끝이 시려 찾는 이가 없을 법하지만, 바다는 더 찬란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 새벽바다에 해덕(海德) 박익진 작가가 섰다. 매서운 추위에도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지긋하고 따뜻하다. 대왕암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비석, ‘나의 잊히지 못하는 바다’ 처럼 그는 이 바다를 잊지 못하고, 다시 또 찾아왔다. 오죽하면 수많은 풍경들을 제쳐 두고 ‘고향 경주 감포바다 사진작가’ 라고 자부하는가!
그 사랑에, 바다도 ‘반갑다’ 고 인사한다. 아무에게나 보여 주지 않는 시원(始原)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런 바다를 보며 그는 넋을 잃는다. 감동이 가슴가득 채워져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다. 카메라 가방을 열다 말고 장엄함에 심호흡부터 한다. 오! 나의 바다 감포여!

감포바다 촬영한 ‘월계관 쓴 오메가 일출 사진’
대구FC승리기원, 엔젤 시민 행운상징
대구축구전용구장 개장과 함께 기쁨 2배

어린 시절, 해녀들이 물질하던 바다에서 먹을 감을 때는 언제나 도시를 꿈꿨던 사진작가 박익진. 하지만, 공직을 맡아 벼락이 매고 도회 생활을 하고 부터는 이 바다가 늘 그리웠다.

그는 어린 시절 소년으로 돌아가, 고향 바다에 섰고, 감포 바다는 그를 안았다. 늘 그리운 바다였지만, 갈 때 마다 바다는 새로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이번에 엔젤상견례 룸에 기증할 일출사진도 그렇게 감포 앞바다에서 만났다. 특히나, 월계관을 쓰고 웃는 태양의 모습이, 2018년 FA컵을 우승한 대구FC와 안성맞춤이었다. 그 때를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향 감포바다 사진작가 박익진 작가는 대구축구전용구장 개장과 함께 일출사진을 통해 대구FC와 엔젤의 찬란한 내일을 기원했다.

140 x 280cm 해오름빛망울

그날, 고향 바다는 더 없이 잔잔했다. 바다는 잔잔한데, 오히려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해 뜨기 전 바다는 어두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수면을 하늘로 밀어 올리는 붉은 기운이 마치 월계관 같은 구름을 부르는 듯 했다. 해가 떠오를수록 그는 저도 몰래 읊조렸다.

“오! 오메가(Ω)다.”

맑은 하늘에 오메가의 모습은 봤지만, 열은 미소 같은 구름과 함께 얼굴을 드러낸 오메가는 처음이었다. 손 끝이 얼어 왔지만, 셔터를 눌렀다.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엔젤클럽홍보사진작가로 위촉된 박익진 작가는 이 귀하다 귀한 사진을 새롭게 개장할 대구축구전용구장 내 대구FC엔젤클럽 룸에 선뜻 기증했다. 지난해 첫 우승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대구FC와 엔젤클럽이 최고로 승승장구하라는 바람에서다.

박익진 작가는 “평소 엔젤클럽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엔젤홍보사진작가를 흔쾌히 수락했다”며 “새로운 전용구장 개장으로 대구FC와 엔젤클럽이 제 2의 도약을 시작하는 만큼, 20년 가까운 사진 노하우의 혼을 담아 촬영한 일출사진을 기증하게 됐다”고 기증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익진작가의 감포 일출사진은 상서(祥瑞)로움을 불러오는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진 만큼 대구FC와 엔젤에게는 새해를 맞아 더 없이 ‘복(福)’ 되고 ‘길(吉)’한 일이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Ω)으로 최고를 뜻합니다. 스위스 최고의 시계 브랜드도 ‘오메가’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쉽게 오메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아름다운 구름이, 마치 월계관을 쓰고 있는 태양은 처음입니다. 그 미소가 얼굴에 걸려 있어요. 바로 대구FC의 승리를 기원하는 태양입니다.”

박익진작가는 오메가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엔젤의 안녕을 빌었다.

“바다는 따뜻하고, 바깥기온은 차가울 때 오메가가 생기지요. 한 마디로 우리 엔젤과 대구시민들이 남을 대하는 마음은 따뜻하고, 머리는 항상 차갑게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메가는 바다 가까이에서 촬영해야 하는 만큼 엔젤클럽이나 대구시민들이 대구FC를 가까이서 응원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 워낙 크다 보니(240×480cm), 5조각으로 나눠 작업했다. 이음부분으로 인해 작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최고급 한지, 참 종이로 작업했다. 한 마디로 장관이다. 대구축구전용구장에는 이제 늘 행운의 오메가가 뜨게 된 것이다.

일광파도 해오름 빛망을 작품
대구FC 환호하는 엔젤과 시민 표현
자연은 위대한 스승!
심신의 귀 열면 가르침 얻을수 있어

엔젤에 기증할 또 다른 작품은 바로 일광(日光)을 머금고 있는 ‘해오름빛망울’ 사진이다. 전용구장 내 엔젤사무실에 전시된다. 보케(bokeh) 기법으로 촬영한 이 작품은 꽃망울의 느낌을 일출에 투여해, 또 다른 감동을 준다. 흔히 꽃망울을 표현하는 작가들은 있지만 파도와 일출로 빛망울을 표현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작품을 보면 떠오르는 태양을 반기는 파도가 일출빛에 망울져, 마치 대구FC를 환호하는 엔젤과 시민의 함성 같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는 박익진작가의 20년 사진 인생이 망울져 있다. 수많은 고민과 사색은 기본이고, 파도의 높이와 태양의 위치와 같은 자연의 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 카메라 위치, 조리개 등 카메라의 조건까지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얻을 수 있는 작품이기에 엔젤로서는 더 없는 선물을 받은 셈이다.

고향 감포를 떠나 공직 생활을 하던 박익진 작가는 사진을 좋아해서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닐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 그 열정이 향한 곳은 바로 고향 감포바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면서 그는 고향 감포바다에 자연스레 천착(穿鑿)하게 되었다. ‘수구초심’ (首丘初心)이라 했던가! 고향에서 다시 본 바다는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요, 창작의 바다였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놀던 송대말등대 바다를 집중적으로 찍었다. 아름다운 솔밭과 등대가 그림 같은 송대말등대는 그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가슴 속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자연’”이라는 박익진 작가는 “촬영을 하러 바다에 나서면 바다는 자연, 그 자체로 내게 큰 스승이 된다.”며 “때로는 잔잔하고, 가끔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모처럼 허락한 자연의 신비한 빛으로 수많은 가르침과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찍을 때면 마음을 정화하고 바다와 하나가 되어 온 마음과 육체의 귀를 열어둔다. 그렇게 온몸으로 받은 가르침과 에너지로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낸다. 덧붙여 박익진 작가는 “사진은 상상 이상의 큰 감동과 행복을 주며, 열정과 창작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향 감포 바다를 찍되, 또 다른 표현과 창작기법으로 새로운 바다사진을 내놓을 것”이라고 남다른 창작열을 보였다.



당신은 샤갈입니까?

인터불고 골프장을 품은 신개념 타운하우스
샤갈의 마을이 곧 귀하를 찾아갑니다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

샤갈의 마을

Townhouse | 대세로 떠오른 상류주거의 새로운 트렌드

Fairway Spa | 페어웨이를 감상하는 레저형 홈스파

Terrace | 탁트인 전망 여유로운 휴식 즐거운 파티

Healing | 인터불고 골프장을 품은 초록빛 삶터

Duplex | 생활공간과 개인공간 분리 복층디자인

분양문의: 053 795·1700

타운하우스(TOWNHOUSE)란?

1·3단지 시행
2단지 자금관리

하나자산신탁

공동시공

대영에코건설(주)

태왕

근대 영국귀족들이 도심 근교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양식과 에티켓으로 차별화된 신분을 표시했던 대저택이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상류사회의 주거형태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주거문화의 새로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본 책자의 00에 표현된 분양물의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사진 CG 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샤갈의 마을

DAEGU FOREST ARENA

191, Goseong-ro, Buk-gu, Daegu, Republic of Korea
41594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Angel Zone

7M

7Minutes

그라운드와 7m 거리의 관람석
더 가까워진, 우리들의 축구장

북구청에서 걸어서 7분,
대구역에서 차로 7분
대구 도심 속, 우리들의 축구장

12,000 Seat

국내 최초 경량 알루미늄 좌석
당신의 함성에 울림을 더한,
우리들의 축구장

2019

최초의 시민구단
대구FC를 위한 축구전용구장
새로운 역사가 스며들, 우리들의 축구장



권영진 대구시장이 FA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새해 특집 인터뷰

대구FC 구단주 권영진 대구시장

언제나 구단주이기에 앞서 축구마니아이고 대구FC의 열성팬이라고 강조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독심은 시민구단 대구FC를 국내 정상으로 올려놨다. 축구와 시민구단을 통해 지역사회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입증했다. 2019년 대구FC는 아시아의 별이 되기 위해 또 한 번 출발선에 서 있다. 그 뒤에 누구보다 든든하게 서 있는 권영진 시장을 만나, 새로운 대구의 희망을 들어봤다.

Q 대구FC는 축구전용경기장과 ACL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한해를 맞게 됐습니다. 이런 뜻깊은 한해를 맞아 엔젤클럽과 시민, 축구팬에게 새해인사 부탁드립니다.

A 2018 FA컵 우승! K리그1 7위! 등 대구FC가 역대 최고성적으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설레고 가슴 벅차게 2019년을 시작하게 되어 구단주로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때나 줄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고 애써주신 시민여러분과 엔젤클럽 회원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K리그를 넘어 아시아로 꿈을 키워나가는 대구FC가 더욱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구가족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해, 희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K리그 홈 개막전이자 개장행사가 열리는 축구전용구장인 새구장에서 3월 9일 만나 뵈기를 고대합니다.

Q 지난해 대구FC는 FA컵 우승을 하는 등 구단 최고의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풀썩에 머물면서 팬들의 걱정을 사는 등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을 보냈는데요. 구단주로서 지난 한 해를 보낸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지난 한 해 대구FC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우승에 도달한 과정은, 시민들과 축구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 주었습니다. 값진 우승 트로피를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선수단이 흘린 뜨거운 땀과 노고를 알기에, 기적 같은 그 일을 이루어 낸 조광래 대표이사과 안드레 감독, 한희훈 주장을 위시한 선수단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고 애썼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또한 선수단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신 엔젤클럽 회원들과 성원

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사 여러분, 250만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 FA컵 우승은 2002년 대구FC 창단이후 공식대회 첫 우승타이를 이며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구단중 최초의 우승이라는 영광의 이름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구FC의 주 그라운드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펼쳐졌습니다. 구단에서는 2019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다시한 번 더 힘을 내주길 당부드립니다.

Q 올해는 기업에서 후원하는 구단이 약세를 보인 반면 시·도민 구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요인과 진정한 시민구단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시민주 공모를 통해 창단한 대구FC와 같은 시민구단은 태생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단이기때 시민들과의 결속력은 기업구단과는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구단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축구팬들과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선수들은 밤낮없이 노력하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해 시민구단인 대구FC의 FA컵 우승과 경남FC가 K리그1에서 2위의 성적을 거양한 과정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시민구단은 그 존재만으로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의 자긍심이 되어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포츠 이상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대구FC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구라는 이름을 아시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구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정부의 ‘축구 굴기’로 축구 열기가 뜨겁고, 특히 광팬이 많은 광저우팀과의 경기에는 2~3천명의 원정응원단이 우리 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우리 대구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역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란데팀 원정응원단을 위해 2박3일 일정 관광상품을 개발중에 있으며, 호주와 일본 등의 원정응원단을 위한 관광마케팅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다시 오고 싶은 대구,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구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K리그, FA컵을 순조롭게 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대구시장, 구단주이기에 앞서 축구마니아이고 대구FC의 열성팬이어서 항상 시민들의 구단인 대구FC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창단때부터 함께 했던 대구스타디움을 떠나 시민들과 축구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건립한 축구전용경기장 ‘(가칭)포레스트 아레나’로 홈구장을 옮기고, 4월에는 클럽하우스로 이사를 가는 등 대구FC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대구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새구장에서 K리그 우승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최근 엔젤클럽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대구DNA’를 배우겠다는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A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대구FC 엔젤클럽은 대구의 정의로운 정신인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시민후원모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처럼 대구FC엔젤클럽의 ‘시티즌 오블리주’의 정신 또한 타 시·도에 모범사례가 되어 전파되고 있으니 대구시장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자랑스러운 국채보상운동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엔젤클럽의 정신은 대구의 새로운 정신으로 명명되며 후세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엔젤클럽은 지난해부터 엔시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엔시오는 소액으로도 엔젤의 정신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성공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A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민들 가슴 깊은 곳에는 대구와 축구사랑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대구FC가 창단할 때 4만 8천여명의 시민들이 주주가 되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시민구단의 비상에 큰바람을 일으켜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를 실현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 올해부터는 엔젤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되어 새로운 축구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축구전용구장 시대를 전망하신다면요?

A 대구FC의 홈구장으로 사용될 ‘포레스트 아레나’는 지역축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1만 2천 관중석이 자리한 경기장은 필드와의 거리가 7m로, 축구팬들은 선수들의 힘찬 심장박동과 그라운드 위의 울림을 가까이에서 뜨겁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스

탠딩 응원석, 테이블석 등 좌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관중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경기장 바닥을 두드리며 응원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축구팬으로서 설레기도 합니다.

또한 ‘포레스트 아레나’는 잘 꾸며진 카페와 음식점, 펍(Pub) 등 휴게공간이 있어, 축구관람뿐만 아니라 신나게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연인들과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선진국형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Q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엔젤클럽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엔젤클럽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보에 감사와 존경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나누기는 말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엔젤클럽이 ‘시티즌 오블리주, 후원문화’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은 헌신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엔젤클럽 회원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FC 선수들과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② 안드레 감독,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광래 대구FC 대표와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2019년 대구의 희망 김대원 선수와 함께]

엔젤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맑은 김대원 선수의 새해 인사는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차다.

지난해 결성되어 지금까지 꾸준한 축구사랑을 보인 엔젤축복(엔젤들의 쓸데 있는 축구토크) 회원들이 새해 첫날 김대원선수를 만나 함께 새해인사를 전했다. FA컵 우승 후에도 김대원선수는 바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축구대표팀 예비선수로 차출되어 혹독한 훈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원 선수는 특별히 엔젤들과 만나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대원 선수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새해 인사 영상을 찍어, 엔젤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번개모임을 마련한 안상영엔젤은 “김대원선수와 함께 축구 사랑이 남다른 몇몇 엔젤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올 시즌 선전을 기원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님 곁을 떠나 첫 직장인 대구FC에서 치열한 자리다툼을 하는 어린 선수가 대견스러워 만든 자리였다. 시종 밝은 웃음으로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FC의 전설적인 컬럼니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안상영엔젤은 “마칠 때쯤 올 시즌 출사표를 청해 들었다. 겸손하게 15포인트를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10G-10A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시켰다.”며 “김대원 선수는 능력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참석한 다른 엔젤도 “충분하다. 가능하다.”는 반응이었다. 아울러 헤어지면서 엔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는 반듯한 인성에 모두 감동했다. 김유석 엔젤은 “새해 첫날 바쁠 텐 데 엔젤과 함께 해줘서 정말 귀하고 반가웠다”며 “올해에도 최고의 플레이로 더 큰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그리고 함께 외쳤다.

“2019년! ACL 게 켜거라. 김대원이 간다.”



엔젤들과 함께 새해인사를 하는 김대원 선수 (김유석, 안상영, 양종호, 정소영)



“안녕하세요, 엔젤회원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FC 김대원 2019.1.1



2019년 대구FC가 K리그, ACL, FA컵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수급 문제가 성적에 큰 변수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엔젤들은 지난해 활약한 외국인 선수의 잔류문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은 엔젤연습복을 입고 훈련중인 세징야와 에드거)

K리그 상위스플릿 진입! 4강도 노려볼만
ACL 선전 예선통과 희망
문제는 선수층! 어떻게 풀어갈지 벌써부터 기대



1 FA컵 결승전에서 엔젤클럽이 뜨겁게 대구FC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2 천자우 엔젤자문위원(오른쪽사진)은 2018년 연말 분위기만 잘 이어간다면 올해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엔צל축특 회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2019년도 전망했다. 대부분 2018년 하반기 분위기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K리그는 상위스플릿, 나아가 4강을 기대했다. 그 리고 또 하나의 ‘우리들의 리그’가 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도 예선통과 등 선전을 전망했다. 다만, FA컵 까지 포함해서 3개 대회를 운영해야하는 만큼 선수층 문제를 염 려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2019년 대구FC의 가장 큰 숙제!

“올해는 지난해 연말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천자우 자문위원은 “연말 분위기 쪽 살려서 전반기에 4강 안에 자리 잡고 ‘양수접장’, 이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라며 “나아가 기회 되면 엔젤들이 노력해 관중수입도 전체 구단운영비의 15%이상으로 올려서 선수들의 기(氣)를 살려 ACL 4강까지 진출하도록 우리가 밀어보자”고 했다.

“새 해 첫날 김대원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반가웠다”는 김유석 엔젤은 2018년 대구FC의 활약은 영국 프 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15/16년 시즌에 버금간다.”며 2019년 대구FC는 우승후유증을 겪은 레스터시티만큼 전력 누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성적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석 엔젤은 상위스플릿은 기본이고, ACL에서도 16강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승리

DNA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대구FC 젊은 선수 들의 포효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중호엔젤은 “지난해 ACL진출을 일찌감치 예언했었다”며 “올해는 지난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리그 상위권은 물론 ACL에서도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고 벌써부터 그라운 드가 기다려진다고 했다.

정소영엔젤은 “2018년은 리그에서는 비록 상위 스플릿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7위라는 좋은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FA컵을 뒤흔치며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을수 있어 대구 FC로서는 의미있는 한해 였다.”며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컸지만 국내파 선수들도 조현우 김대원 등 큰 역할을 한만 큼 올해 대구FC의 미래도 밝게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소 영엔젤은 우리 선수들이 어느 팀하고 경기를 하더라도 자신 감을 갖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은 걸음 마 단계라는 것이 정소영엔젤의 생각이다. K리그, ACL, FA컵 대회 등 3개 대회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스쿼드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은 또 다른 해법을 부 른다. 정소영엔젤 역시 희망의 대구FC를 기대했다. “새로운 구장을 개장하면서 과연 대구FC가 어떻게 이런 문 제를 헤쳐나갈 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있잖은가? 바로 엔젤이라는 ‘대구의 자랑’이 있습니다. 엔 젤과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날은 계속될 것이며 그날은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날이 될 것 입니다!”



ANGEL WITH US



축구대구 엔젤대구

‘엔젤의 절실함’ 대구를 바꿀 것

다이아몬드엔젤 11호 백서재 (주)대영전자 대표이사

엔젤클럽, 상대 포용하고 배려하는 ‘대구정신’ 상징하길 기대

11호 다이아몬드 엔젤 백서재 대표이사를 찾아간 12월 6일은 ‘해피데이’였다. 하루 전인 12월5일 대구FC가 2018년 하나은행 FA컵 결승 울산원정경기에서 2 대 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섰기 때문이다. 그것도 종료직전 역전골이 터지면서 200명 가까운 엔젤원정대와 TV로 응원한 엔젤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맛봤다. 바쁜 일정으로 엔젤원정대와 함께 못한 게 아쉬웠던 백 대표 역시 이날 경기를 TV로 다 지켜보며 응원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승리의 행복감이 백대표의 밝은 얼굴에 남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FA컵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

“TV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엔젤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 엔젤 일원으로 뿌듯했습니다. 축구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A매치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2002년 대구FC 주주모집에 참여한 후 백대표는 그동안 대구FC를 잊고 살았다.

“그때는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정신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죠. 주주공모에 참여한 것 같았는데, 그 후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인연이 소중한데 봐요. 엔젤을 통해 다시 대구FC를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자주 만나는 이호경 엔젤클럽회장이 우연찮게 사무실에 찾아온 것이 엔젤과 인연을 맺은 계기다. 예전부터 엔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데다 이호경회장의 ‘대구사랑’에 대한 열정에, 백대표는 두말없이 엔젤에 가입했다. 처음에는 일반 엔젤(후원금 연 1백만원)로 추천됐으나, 그는 힘닿는 데 까지 후원하겠다고 ‘다이아몬드 엔젤(후원금 연 1천만원)’을 자청했다. 열한 번째 다이아몬드엔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1’이라는 숫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축구의 베스트 11라는 숫자도 상징성이 있지만, 그동안 10명에서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던 다이아몬드엔젤이 백대표의 가입으로 추가로 이

어지는 것도 고무적이다.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이 12호 다이아몬드엔젤로 가입했고, 13호 다이아몬드도 예고되고 있다.

백대표는 시민구단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민구단은 대구민심, 정신, 철학을 대변하는 ‘상징’이라는 것이 백대표의 생각이다.

“대구라고 하면 장점으로선 의리와 욕심, 리더십이 강한 보스기질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고 지역색이 강하고, 폐쇄적인 점이 그렇지요.”

백대표는 타지역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대구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이런 부분을 시민구단 대구FC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로 엔젤의 컨셉이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대구(大邱 큰 언덕)’라는 이름답게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큰 마음’, 그래서 누구나 ‘대구인’이라고 하면 함께하고 싶고, 친숙함을 느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문득 어제 경기를 응원하면서 ‘대구가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아가 상대팀도 포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된 응원 문화를 보여 준다면 대구가 축구를 통해 더 멋지고 살만한 도시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후원하고 우리선수들을 응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를 바탕으로 대구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절실함으로 하나된 엔젤과 대구FC,
2018년 큰 성과 이뤄내



베트남 현지공장



(주)대영전자 본사 (경산시)

직원 행복한 회사 만드는 게 목표 신뢰 바탕으로 삼성 협력업체로 입지 다져

이처럼 백대표는 기분을 중요시 한다. 회사운영에도 기본과 원칙이 생명이다. 백대표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를 꿈꿔왔다. 지극히 기본적인 목표지만, 그것만큼 분명한 슬로건도 없다.

“우리 회사의 DNA는 변화와 도전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어 봤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생각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변화와 도전의 목적지는 결국 행복한 회사다. 단순하고 명쾌하다.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깨끗하고 청결해서 직원들이 있고 싶은 환경이 좋은 회사, 그것이 백대표가 꿈꾸는 (주)대영전자의 목표다. 전자부품(LED디스플레이) 등 생활가전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주)대영전자는 그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삼성의 1차 협력업체로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후 자체 기술로 대용량공기청정기와 자연가습, 제균기능을 갖춘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빈트(VVINIT)’를 생산, 완성품 제조업체로 거듭났다. ‘빈트’는 대영의 자체생활가전 브랜드다.

백대표가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 이야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장인으로 총망 받았던 백대표는 마흔의 나이에 우연찮게 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충을 겪었다. 특히, 자신을 믿고 도와준 주위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힘들 때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불면의 밤을 뒤로하고 새벽 어둠을 충충히 뚫고 회사에 나와 자신을 붙들었다. 새벽의 현장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게 했고, 정신을 맑게 했다. 매출채권이 확

실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살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절실함으로 매달렸고 결국 삼성이라는 일류기업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절실함 없이는 무엇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FC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는 절실함이 곧 결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백대표는 조광래 대구FC 대표와도 구면이다. 우연찮은 저녁자리에서 만나, 갑장(?)끼리 마음을 텃다고 한다. 절실함에 대해서는 조대표도 빠지지 않는다. 살아온 축구인생이 절실함의 여정이었다. 오죽하면 ‘힘들때가 승부다’라며 절실함을 외쳤을까? 절실함은 서로를 알아 보는 법이다. 조광래 대표 역시 그 절실함을 안고 울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백대표는 또 다른 절실함의 예를 들었다. 급변하는 국내산업환경을 예측해 벌써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그는 뜻밖에도 베트남축구에서 ‘절실함’을 확인했다.

“우리 베트남 공장에 근무하는 현지인 만도 천여명 되는데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넘어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박항서 감독을 초빙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절실함과 박 감독의 절실함이 지금의 베트남 축구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엔젤클럽 역시 ‘대구를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절실함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 게 백대표의 지론이다.

“축구사랑과 대구사랑에 대한 엔젤들의 절실함은 대단한 것 같다”는 백대표는 “다만 그 절실함이 지역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보다 큰 대구정신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지개 너머 엔젤의 꿈이 이뤄진다!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 1004포토 프로젝트
엔젤 1004명 카메라에 담은 감동의 봉사

무지개 너머 어딘가! 엔젤의 꿈이 이뤄지고 있다. 한 무모한(?) 엔젤의 '열정'을 거쳐 엔젤의 이야기가 위대한 대구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바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하제연엔젤(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의 '구포토프로젝트' 이야기다. 하제연엔젤이 '인생작업'으로 진행 중인 구포토프로젝트는 1004명 엔젤들의 프로필사진을 만드는 작업으로, 엔젤들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고식과 같다. 많은 엔젤들이 '엔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일부 엔젤들은 초기의 의지가 희미해졌다. 하제연엔젤은 그 희미한 엔젤의 흔적을 '마음의 심도(深度)'로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다. '그대는 엔젤'이라 카메라로 각인시키고, 그 사실을 인화하여 사진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대구축구전용구장 DGB아레나(가칭)에 들어설 엔젤 명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하제연엔젤은 지난해 9월 강정영엔젤의 추천으로 축구천사의 날개를 달았다. 처음부터 심상찮았다. 그는 '후원'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엔젤이 됐다고 했다. 평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는 대구축구전용구장에 '엔젤명예의 전당'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인 1004명의 엔젤 사진을 일일이 촬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 구멍' 포토프로젝트지, 100명도 못해 중간에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다. 물론 일부 이야기다. 하 대표는 그런 것에 연연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일'을 지금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저 무지개 너머 하늘은 파래요
그리고 당신이 감히 꿈꾸던 꿈도 정말 이루어지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 Somewhere over the rainbow 중에서)

대구도심 위치한 레인보우스튜디오 무지개 너머 엔젤의 꿈이 실현 되는 곳

대구 동성로 노보텔 뒤편에 위치한 레인보우스튜디오는 지붕 높은 4층짜리건물에 위치해 있다. 건물 2층부터 4층까지 3층에 걸쳐 25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크고 넓은 창이 있어 마치 카페 같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헤어메이크업 담당자인 김혜민씨가 커피머신으로 ‘블루마운틴’을 뽑아왔다. 레인보우스튜디오 직원 모두 ‘친절한 제연씨’를 닮아 친절함이 ‘뽐뽐’ 터진다. 무지개 너머 그 어디선가 온 것 같은 김나연실장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처럼, 밝은 미소로 엔젤들을 반긴다. 대기실에서 편하게 담소를 나눈 뒤 촬영 시간이 되면, 헤어메이크업실로 올라간다. 별도로 마련된 드레스 룸에는 턱시도, 파티복은 물론 트렌디한 캐주얼 의상과 신발까지 사이즈별, 연령대별로 준비되어 있어 누구든 자신의 컨셉에 따라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다. 메이크업이 끝나면, 3층 촬영장에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된다.



엔젤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하는 카페 같은 대기실

층고가 높은 스튜디오 촬영장은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난다. 하제연엔젤과 황진우작가 그리고 마상모PD는 항상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사람의 표정 뿐 만 아니라, 웃음도 함께 카메라에 잡힌다. 뿐만 아니다. 편집실 옆에 마련된 영상 촬영스튜디오에서는 ‘휴먼북’이 만들어져, 엔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생히 담겼다.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의 믿고 보는 영업이야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사업을 시작한 민준홍 엔젤의 좌충우돌 인생도전기 등 엔젤이야기엔 끝이 없었다. 하제연엔젤은 늘 직원들에게 강조한다. ‘구포토프로젝트’는 봉사로 하는 것인 만큼 찾아오는 엔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진심을 다해 맞이하라고 주문하다. 직원 역시 ‘엔젤의 하트(Angel Heart)’를 가진 모양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야근이 늘어났고, 쏟아지는 하제연대표의 주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2개월 넘는 기간에도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레인보우스튜디오 가족들 모두
엔젤의 마음을 가졌다.
수많은 야근에도 언제나 웃으며
엔젤을 맞고 있다.



김나연 | 실장

황진우 | 작가



하제연 | 대표

마상모 | PD

김혜민 | 헤어·메이크업

어린시절,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지원 사진은 사람과의 소통, 화보 같은 가족사진으로 새로운 트렌드 리딩

하제연엔젤의 사진에 대한 인연은 부모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려서 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부모님에게 카메라를 사달라고 졸랐다.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카메라를 사달라고 했더니,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학 때 파슬리 농장에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두 달 번 9만원을 들고 부모님께 갔더니, 부모님께서 나머지 돈을 보태 카메라를 사주셨어요.” 당시 카메라 가격이 100만원정도 였으니, 실제로는 사준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부모님은 ‘소년 하제연’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부모님은 동네사진관에 미리 부탁해서 아들이 오면, 필름은 물론 인화, 현상까지 마음대로 해주고, 비용은 따로 청구하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다. 하제연엔젤은 카메라를 가진데다, 현상과 인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겁날게 없었다. 내친 김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예식 촬영을 하러 다녔다. 학생이니까 조금만 남아도 됐다. 특히, 적은 비용에다 정성을 담은 사진에, 고객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는

것을 보고 그는 행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하제연 엔젤의 사진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특히 가족사진은 화제를 모았다. 무엇을 하든 그는 사진에 철학을 먼저 이야기했다. 증명사진이면 증명사진, 그리고 가족사진이면 가족사진에 대한 철학이 중요했다. 가족사진은 ‘최고의 인테리어’며, 가정에 좋은 기운과 행복을 주는 ‘최고의 부작’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러니 그의 가족사진은 남달랐다. 화보 같았다. 정장에 얹매이지 않고, 캐주얼한 분위기에 밝고 웃음이 가득했다. 청바지와 흰 셔츠를 입으니, 가족 모두 미소가 넘쳐났다. 그래서 가족 촬영을 함께 하는 것 만 으로는 가족들의 행복온도가 높아졌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바지에 이어 베이지 톤과 그레이 톤 콘셉트로 또 다른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대구에서 화보느낌의 캐주얼 가족사진 원조이며, 새로운 트렌드의 리더가 됐다. 또 다른 사진에 대한 철학은 ‘최소 보장’이다. “과보정한 사진은 이미 내 사진이 아니다”는 그는 “진정한 요리는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고 좋은 재료와 최소한의 양념만으로 깊은 맛을 낸다.”며 “사진도 마찬가지다. 최고의 사진은 조미료 같은 보정이 아니라, 사진에 대한 경륜과 열정을 가진 작가가 좋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고객과 호흡을 함께 할 때 만들어진단다.”고 말한다.

주는 인생 하제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더 행복' 앞으로 포토프로젝트는 물론 유튜브에 엔젤TV도 개국 예정

그는 사진으로 이야기 하고 사진으로 소통하며, 사진으로 봉사한다. 양로원에 찾아가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물론 웨딩 사진을 찍지 못한 분들에게 무료로 웨딩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이를 '보람'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봉사하다보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제연 엔젤의 철학은 자신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면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줘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100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은 70을 남기려고 하는데, 저는 10 ~ 20만 남긴다고 생각하고 쓸 것 쓰고, 제대로 합니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적게 남기고, 즐기는 사람이 뚝뚝하는 것 같습니다"

하제연엔젤의 꿈은 아직도 많다. 스튜디오와 엔젤 현장에서 만든 사진과 영상콘텐츠를 대구지역의 보다 많은 곳에 방영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조용호엔젤(어팩시스템 대표)과 함께 키오스크나 전광판을 통한 엔젤영상 송출을 기획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한 엔젤홍보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실제로 '대구FC엔젤클럽' 이름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고 그동안 제작한 휴먼복과 영상을 업로드 해 4,800회 수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올해 2019년 엔젤TV 개국을 꿈꾸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엔젤들도 나중에 활짝 웃는 것을 보면 저 역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엔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고,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표정을 보고 더 많은 엔젤들이 함께 할 겁니다. 아울러, 엔젤분들 역시 단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엔젤이어서 즐겁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하제연엔젤과 레인보우스튜디오 식구들이 꿈꾸는 '행복'은 무지개 넘어 있지 않았다. 바로 엔젤의 행복이 무지개였다.

하제연 엔젤은 오늘도 그 행복을 위해 무지개를 건너오고 있다. 



승리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장에는
열정적인 엔젤클럽의 **하제연 작가**가 있다!

도심속의 휴식공간 하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객실예약 053)602-7171~3

이제, 호텔에서 놀자 **치맥하며 놀자 ~ !**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더뷰페 및 인터불고 조식뷔페 제공

+ 석식2인 (더뷰페 or 심비디움)

더뷰페 (월~금), 심비디움 바닷가재 (주말 / 공휴일)

+ 프리미엄 치맥

박벌소 아칸포차 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453,000~~

₩263,000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가 불가합니다.
10%의 부가세 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Wedding Park Village

웨딩 예약 및 상담 053. 602. 7272

동화속에 있는 느낌 그대로...

웨딩 파크빌리지



Wedding Park Village

Hotel Inter-Burgo DAEGU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212, Palhyeon-gil,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TEL 053. 602. 7114 FAX 053. 953. 2008

엔젤 황금빛 날개달다!

주주에서 엔젤로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바람의 선물 대표

기해(己亥)년 2019년 황금돼지해!
엔젤클럽에도 복(福)이 찾아왔다.

1월2일 새해 첫 번째 '엔젤 수요만남의 날'이 열렸다. 이날 찾아온 축구천사는 남호영 엔젤(〈주〉청운이앤지·바람의 선물 대표)이다. 우직하고 독심 있는 모습은 클래식한 축구와 닮았다. 실제로 남대표는 축구와 인연이 많다. 어린 시절 축구가 너무 좋았다. 집에서든, 또 학교에서도 축구밖에 몰랐다. 당연히 그의 꿈도 축구선수였다. 중학교 시절 두 달 정도 축구 스파이크를 신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핏속에 가득한 축구본능이 사라지는 않는 모양이다. 2002년 대구시민프로 축구단 공모 때 주주로 참여했다. 비록 축구선수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민구단의 주인으로 축구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 했다. 기대와 달리 구단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물론, 큰 불만은 없었다. 그저 시민구단이 잘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남대표도 사는 게 만만찮았다.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면을 끓이면서 중에서는)' 소설가 김훈의 말처럼, 남 대표도 먹고 사는 길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축구사랑'도 가슴 속 저 한 곳으로 밀려났다.

4번의 사업 실패.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축구'뿐일까. 남대표는 인생이라는 그라운드에 열정의 스파이크를 신고 달렸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인생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 전문분야는 아니었으나 마지막으로 에어컨 등 공조(空調)설비 분야에 뛰어 들었다. 하다 보니 자신과 잘 맞았다. 축구로 치면 제 포지션을 찾은 것이다. 그 후 18년 동안 냉난방기, 건조기 등을 생산하며 전문성을 키웠고, 산학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수출까지 했다.

남대표는 냉풍건조기에 관심이 많았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였다. 냉풍건조기를 생산하다 보니 고기 숙성에도 눈이 갔다. 바로 건조숙성방법인 '드라이에이징(Dry Aging)'이다. 이 방법으로 고기를 건조할 경우, 수분이 빠지고 육즙은 응축되어 육질이 연하고 식감은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기에도 다른 숙성 방법에 비하여 숙성 시간과 손실률까지 줄어드니 일석이조였다. 우연찮게 식당까지 맡으면서 남대표는 외식분야에도 직접 뛰어들게 되었다. 그 이름도 '바람의 선물'이다. 냉풍건조기에서 숙성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상호다. 메인 메뉴는 드라이에이징 삼겹살과 명태찜. 포항 양덕에 있는 '바람의 선물'은 이미 맛집이 되었고, 최근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바람의 선물' 2호점을 냈다. 이처럼 치열하게 '밥벌이'가 안정되자, 가슴 속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축구본능이 살아났다.



새해 첫번째 열린 수요만남의 날(가운데 남호영엔젤)
아래 사진은 남대표가 운영하는 '바람의 선물'

4전5기 끝에 사업 안정되자, 축구사랑 살아나! 인터넷으로 엔젤클럽 검색, 직접 전화 걸어 가입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밥벌이의 지겨움’중에서)”

'밥벌이에 대책 없다'면서도 끝내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소설가 김훈의 속내처럼 남대표의 목표 역시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다. 밥벌이가 안정되자, 남대표는 축구가 그리웠다. 밤새워 유럽 축구 중계방송을 봐도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침, 대구에 축구전용구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던 참이었다. 남대표는 관련소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찾던 중 우연히 '엔젤클럽'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직접 전화번호를 찾아 강병규 상임부회장에게 연락을 했다. 그렇게 해서 2019년1월2일 첫 번째로 가입식을 갖고 엔젤의 날개를 달게 됐다.

이호경회장은 “새해 첫날부터 남 대표님과 같이 좋은 분이 엔젤과 함께 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이어질 것 같다”며 “이처럼 자발적으로 엔젤에 가입하는 분이 늘고 있는 것은 대구가 바뀌고 있다는 증표”라고 환영했다.

새해 첫 가입식의 주인공이 된 남대표는 “인터넷으로 대구FC관련, 검색을 하던 중 엔젤클럽을 알게 됐고, 그 취지와 목적이 너무 좋아 지체 없이 연락하게 됐다”며 “내년에 새롭게 완공된 전용구장에서 엔젤과 함께 응원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Angel
Club

“꼭 한번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윤찬 엔젤이 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해 엔젤재킷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nsung Angel 김윤찬

먼 곳에서도 마음은 엔젤

서울 모임 있으면 반드시 참석 약속

“엔젤사무국이 궁금했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곳에 가면 엔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종로 교보빌딩에서 근무하는 김윤찬엔젤(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बैं크 기업심사부 부문장)은 엔젤단톡방과 언론을 통해 엔젤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어떤 열정으로 이처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지 궁금했다고 한다. 고향 대구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엔젤’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를 들른 김에 이번에는 꼭 사무국을 방문하리라 하고 마음 먹었고, 결국 행동으로 옮겼다.

친구와 함께 엔젤사무국을 찾은 김윤찬엔젤은 지난 2017년 7월 김정수엔젤(경북대학병원)의 추천으로 엔젤과 인연을 맺었다. 대구의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 터라 축구에 대한 애정은 기본이었다. 더구나 한 때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김정수엔젤 등과 남다른 친분을 쌓았으며, ‘축구사랑과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정신에 공감했던 터라 두말하지 않고 엔젤이 되었다. 실제로, 서울에 살면서도 대구FC경기를 챙기는 것은 물론, 꼬박꼬박 대구FC를 위해 후원금을 납부하며 ‘축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추천인 김정수엔젤과 부부엔젤로 활동하고 있는 홍칠자엔젤은 “먼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매번 참석은 못해도 마음은 항상 같은 배를 탄 동반자의 맘이라 생각한다”며 “운동장에 자주 보이지 않아도 몇 배 더 많은 박수로 응원하고 계실 분으로 알고 있다”며 김윤찬엔젤의 사무국 방문을 환영했다. 특히, 김윤찬 엔젤은 요즘 대구FC 우승 소식으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시즌 초반에는 기대를 못했어요. 강등 안되기 만 바랐는데, 뜻밖에 우승까지 하니 엔젤로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위에 자랑도 했지요. 제가 엔젤 일원으로서 후원하고 있는 것도 보람있었습니다.”

김윤찬 엔젤은 이날 엔젤재킷과 머플러를 받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정한 엔젤이 된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엔젤사무국으로 방문하는 엔젤들이 늘어나면서 엔젤사무국과 엔젤포토존이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서울 지역 등 타지역에서의 엔젤모임도 출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서울에서 엔젤 모임을 하면 꼭 참석할 생각”이라는 김윤찬엔젤은 “앞으로 좋은 엔젤 분들과 만나, 좋은 인연도 만들고 기회가 되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서울 원정 온 대구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엔젤과 대구사랑을 밝혔다.

기사 작성일 | 2018. 12. 28 

Angel Photo Zone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 날개를 달다. 엔젤빌리지 앞에 조성된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다신분들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해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거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진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민정



공제영 (주)신성건설



권오길 (주)한성건설



권재원 아우노



김용범 에스알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재홍 대호약품



김정달 현대동대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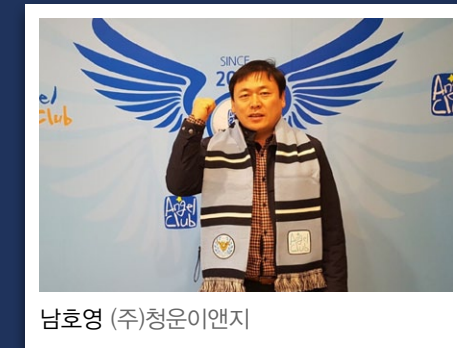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태수 자동차시대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류훈 중앙세라믹스



모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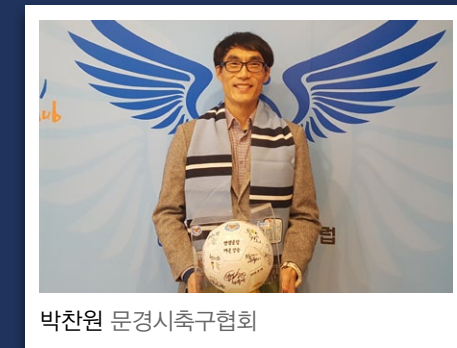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박근백 (주)엠엑스



박진항 어번라이팅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해대 미래테크



배장수 (주)진명전력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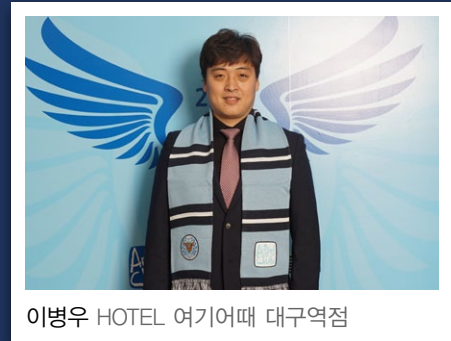
신용범 한미산업



우덕구 (주)진성물류



이기환 (주)거한건설



이병우 HOTEL 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준 대구환경조각연구회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승민 벨류마크한경금융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대표



이응찬 (주)건화



이재표 제이에프



장연배 보광테크



정규익 가구365.COM



조혁준 스카이스튜어디스학원



최원식 건축사사무소리더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엔젤카를 보고 반가워 하는 김양숙엔젤(교보생명)과 송준희엔젤(아이투어) ^o^

엔젤카가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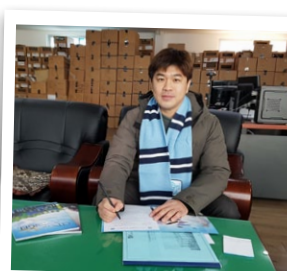
엔젤 및 대구FC를 홍보하고, 엔젤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엔젤의 발 '엔젤카'가 오늘도 대구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만나면 반가운 친구, 엔젤카와 함께 한 엔젤들을 이번 호부터 게재합니다. 앞으로도 엔젤카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보철 일진수지



김명준 올플디앤씨



김승우 KS상사



김주현 (주)신안피피



남경원 (주)경원덴탈



도윤수 파사디골프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선명환 (주)썬이피에스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예준호 요셉성형외과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재호 한미인더스



이형원 일성침장



하중호 플러스컴



한동근 해성병원

※ 게재 순은 가나다 순이며 2019년 1월18일까지 방문한 엔젤입니다.
혹시,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분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대구’는 엔젤!

엔젤클럽 2019년 신년교례회 성료



우승컵과 함께!



올해 사진홍보는 우리가!! (엔젤홍보사진자문단)



대구FC엔젤클럽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이 2018년 FA컵 우승컵과 함께 사랑마크를 만들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젤홍보사진작가위촉, 엔시오 가입, 우수회원 감사패 전달

대구FC엔젤클럽이 2019년 1월 10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호텔 인터볼로 레이디스홀에서 김범일 전 대구시장을 비롯 엔젤 임원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엔젤클럽은 이제 '시티즌 오블리주'의 등거리에 확실히 불을 붙였다. 팔뚝보다 큰 땀감인 등거리는 쉽게 불이 붙지 않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며, “엔젤클럽은 스포츠를 통해 대구정신을 되살리고 대구라는 자부심을 키우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FC 초대 구단주인 김범일 전 대구시장도 “시민구단 대구FC의 2018년 FA컵 우승은 기적과 같다. 바로 시민과 엔젤의 승리”라며 “한때 2부에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엔젤 출범 후 시민이 하나가 되어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다. 정말 큰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엔젤클럽 신년교례회에는 한미인더스 대표 이재호, 보람회계법인 신희영, 주부 강민정, 달서구 축구협회장 박명규, 달서구 축구협회단체가 엔젤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또한, 대구 여성축구단 ‘다이나믹 엔젤스’ 과 ‘범물축구단’이 엔시오 단체가입식을 가졌으며, 사진작가 박익진, 유병완, 김홍만씨를 엔젤 홍보작가로 위촉했다. 특히, 박익진 작가는 대구축구전용구장에 조성될 엔젤상견례품과 사무실에 전시될 일출 사진 2점을 기증기로 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이날 적극적인 활동으로 엔젤클럽 발전에 기여한 정소영(주식회사 창성산업 대표), 강정영(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장), 문준기 (대경맥주 주식회사 대표), 조용호(어팩시스템 대표), 김재홍엔젤(대호약품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의 적극적인 활동을 희망했다.

한편 새 전용구장 ‘포레스트 아레나’ 엔젤클럽 명예의 전당에 전시될 엔젤회원사진을 위해 전 회원 프로필사진 촬영기부를 하고 있는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작가는 이날 행사전체 촬영을 봉사했다.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장님이 이호경 회장님과 함께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엔시오에 단체가입한 다이나믹 엔젤스, 범물축구단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FC엔젤클럽)



우수회원 감사패를 받은 엔젤들 (왼쪽부터 정소영 주식회사 창성산업 대표,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 문준기 대경맥주 주식회사 대표, 조용호 어팩시스템 대표, 김재홍 대호약품 대표)

엔젤 · 엔시오, '대구FC, 2018 FA컵 우승기념' 고맙day 행사 동참

김완준 부회장, 하제연 엔젤, 김종두 사무총장 시장 표창장 받아
사진촬영 봉사, 수제맥주, 장미꽃, 스카프 선물 등 엔젤 봉사 눈길



사진으로 보는 축승회 현장

엔젤클럽과 엔시오가 지난 1월14일 호텔 인터볼고 대구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구FC 2018 FA컵 우승기념 '고맙day'에 참석, 우승을 축하하고, 선수들의 새해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축승회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 대구FC 선수단과 다이아몬드엔젤, 엔젤, 엔시오, 서포터스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수들은 사인회와 FA컵 우승 트로피를 배경으로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함께 찍으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엔젤 엔시오 회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하제연엔젤(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이 행사장 입구에 포토존을 마련, 엔젤과 선수,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분위기를 북돋웠다. 또한, 김남호엔젤(터원창호 대표)이 장미꽃을, 그리고 이화선엔젤(화선<주>)이 고급 스카프를 선물했다. 행사장 내에서는 문준기엔젤(대경맥주 대표)이 대구경북의 맛 '디 퍼스트 수제맥주'를 전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번 행사에도 엔젤의 봉사 정신이 빛을 발했다.

권영진 구단주(대구시장)는 이날 엔젤클럽 김완준 상임부회장, 하제연 홍보이사, 김종두 사무총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후원하고 응원해준 엔젤클럽은 오늘, 기적의 대구FC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DGB금융지주의 김태오 회장 역시 이날 대구FC의 우승을 축하하는 한편, 올 시즌에도 많은 축구팬들이 DGB 아레나로 와서 선수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엔시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은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오늘 엔시오 분들을 처음 뵈게 되어 너무 가슴 설레고 반가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올해 축구전용구장을 만원시키는 또다른 위대한 길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시즌을 마감하면서 엔젤의 구호가 '오늘은 클래식, 내일은 챔피언'이었는데 그것을 불과 2년 만에 이뤄냈다"며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챔피언, 내일은 아시아챔피언'이라고 외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축승회에는 시민엔젤 엔시오들이 특별히 참석했으며, 여성축구클럽인 '다이나믹 엔젤스' (단장 최태원)가 엔시오 단체로 가입하는 등 엔시오 바람을 예고했다. 다이나믹 엔젤스는 앞으로 엔젤과 엔시오를 홍보하는 등 엔젤과 엔시오 운동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① 왼쪽부터 감사 표창장을 받은 하제연 엔젤클럽 홍보이사, 김완준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김종두 엔젤클럽 사무총장



② 엔시오에 단체 가입한 다이나믹 엔젤스 선수들
③ 이호경 회장(엔젤클럽), 김태오 회장(DGB금융지주), 김혜정 대구시의회 부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조광래 대표가 FA컵을 들어올리며 축승회 현장을 뜨겁게 하고 있다.





대구FC엔젤클럽이 대구FC 우승의 영광을 함께하고 있다.



엔젤 기수단(왼쪽부터 김유석, 윤창섭, 백무연, 양승혁엔젤)



엔젤, 대구FC 우승을 함께 하다

엔젤원정대의 뜨거운 함성, 대구스타디움에서는 환희의 축제!
벅찬 감동으로 2018년 마무리

대구FC엔젤클럽이 대구FC 사상 첫 우승의 순간을 함께했다. 힘들 때도 변함없이 대구FC를 사랑하고 후원해온 엔젤클럽이 2018 하나은행 FA컵 결승 1, 2차전을 오롯이 함께 하며 2018년 한 해를 뜨거운 열정과 가슴 벅찬 감동으로 마무리했다.

엔젤클럽은 대구FC가 FA컵 준결승전에서 전남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르자 울산과의 결승 1, 2차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엔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엔젤깃발과 응원문구가 인쇄된 폼포드를 추가로 제작하는 등 응원도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이와 함께 엔젤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물론, 그동안 MOU를 맺은 각 단체와 대학으로 공문을 보내, FA컵 결승전의 의미를 알리고, 경기장을 찾아 줄 것을 요청했다.

엔젤과 협약단체들도 이에 호응했다. 결승 1차전이 열리는 2018년 12월 5일은 평일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엔젤단독방이 뜨거웠다. 엔젤본부 응원분과의 정영준엔젤이 매일매일 참석의사를 밝힌 엔젤들의 명단을 단독방에 올리며, 독려했고, 순수 엔젤 50여명의 원정대가 꾸려졌다. 여기에, 엔젤과 MOU를 체결한 영남대학교에서는 결승 2차전의 기선 제압을 위해 100여명의 원정응원단을 급파했다. 원정 준비는 영남대학교 출신 심인철엔젤과 김일권엔젤이 맡았다. 심인철과 김일권엔젤은 우선 영남대학교 총학생회(회장 박성민)와 연락했고, 발 빠르게 응원단을 조직했다. 박성민 총학생회 회장은 직접 엔젤 사무국을 방문, 응원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심인철엔젤은 학생들의 식사와 음료수를 책임졌으며,



울산 문수구장에 엔젤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총 150명에 가까운 영남대원정대가 울산으로 향했다. 심인철엔젤과 안홍윤엔젤은 각각 학생버스에 나눠 타고 학생들을 인솔했고, ‘엔시오모집’ 동영상을 틀며, 엔젤과 엔시오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엔젤원정대, 휘날리는 엔젤 깃발, 뜨거운 함성으로 하나돼

울산 문수구장에 도착한 엔젤들은 준비해온 엔젤깃발과 응원문구가 인쇄된 폼 포드를 나눠주며 일사분란한 응원전에 대비했고, 서포터스와 연합해 3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응원단으로 세를 불렀다. 경기장 난간에는 ‘엔젤원정대 절대승리를 찾아왔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고,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메가폰으로 응원을 리더했다.

또한, 경기에 앞서 대구FC 깃발을 들고 입장할 기수단으로 김유석, 백무연, 윤창섭, 양승혁엔젤이 선정되어 남다른 추억을 쌓기도 했다. 이날 기수단에 참석한 윤창섭엔젤은 “기수단을 하며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원정석에 나부끼는 엔젤깃발과 대구를 외치는 원정응원단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며, 나 뿐 만 아니라 선수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감격했다.

경기가 시작하자 엔젤들은 깃발 50여개를 흔들며 엔젤의 물결을 이뤘고, 서포터스와 함께 ‘대구’를 외쳤다. 엔젤깃발은 엔젤 뿐 만 아니라 영남대학교 학생들과 축구팬들도 함께 나눠 들고 흔들면서 하나가 됐고, 경기장은 대구와 대구FC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수들도 엔젤과 서포터스의 규모에 놀란 분위기였다. 경기시작부터 주눅 들지 않고 첫 결승전을 치르는 선수답지 않게 울산의 공세를 침착하게 막으며, 위협적인 반격을 펼쳤다. 전반전을 대등하게

마친 대구의 모습에 원정대는 더 목청 높게 응원했고 원정석은 한층 달아올랐다.

세징야 동점골에 감격! 에드가 역전골에 감동의 눈물까지

후반 들어 홈에서의 승리가 절박했던 울산현대가 거세게 밀어붙였고, 후반 4분 황일수의 기습적인 슈트로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하지만, 엔젤클럽과 서포터스의 응원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졌고, 곧 결과가 나왔다. 실점 후 1분 뒤인 후반 5분 세징야가 아크정면에서 드리블을 하다 반박자 빠른 슈트로 울산의 골 망을 갈랐다. 엔젤원정대의 바로 앞에서 터진 감동의 골이었다. 세징야가 엔젤원정대로 달려오며 호날두 세리머니를 하자, 활화산 처럼 함성이 터졌다. 엔젤깃발이 더 높이 휘날렸다. 처음에는 잠잠하던 영남대학교 학생들도 축구의 참맛에 깃발을 흔들며 하나가 됐고, 원정석에서는 모두 일어서서 대구를 외쳤다. 그리고 종료 3분전 엔젤원정대의 눈앞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다.

하지만, 이것은 이날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다. 대등한 경기를 펼치던 양팀. 결승골은 대구에서 나왔다. 상대 공격을 차단한 대구가 빠른 패스로 역습을 전개했고, 상대 오른쪽에서 김유석이 크로스를 올리자 에드가가 뛰어들며 천금 같은 헤더골을 성공시켰다. 순간, 원정석은 아수라장이 됐다. 누구 할 것 없이, 함성을 지르고 부둥켜 안았다. 뒤통을 벗어 던진 에드가는 경고 한 장을 세리머니로 바꾸며 팬 서비스를 톡톡히 했다. 원정대에서는 울음을 터트리는 팬이 있을 정도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현장 뿐 만 아니라 대구에서 경기를 보던 엔젤들도 난리가 났다. 단톡방은 폭발했으며, 축구를 통해 대구가 하나 됐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세리머니까지 펼치면서 원정대의 행복감은 절정에 달았다. 목은 다 쉬어 버렸으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승리였다.

승리 뒤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엔젤들의 ‘징크스’ 설이다. 이날도 예외 없었다. 응원하느라 아예 목이 쉬어버린 엄태건 부회장은 “오늘 늘 하던 대로 승리를 위하여 빨간색 속옷을 입고 왔다”며 “마침 경기장에 들어서니 조현우가 평소 입던 녹색이 아니라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나온 것으로 보고,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속옷 징크스를 털어놨다. 또 이호경 회장 역시 아침에 갑자기 손가락을 다쳤는데 웬지 액땀하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오늘 꼭 이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역전골에 대한 예언도 시비가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됐다. 경기를 지켜보며 몇몇 엔젤이 비슷한 시간에 “3분전

에 역전골이 터져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를 두고 누가 먼저 예언을 했는지 돌아오는 원정버스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외에도 최경목엔젤은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중계를 보면서 응원하는 등 엔젤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대구FC를 응원했다. 이같은 엔젤의 열원이 대구FC 선수에도 전달됐을 것이다. 이날 모두가 승자가 되어 대구로 돌아왔다. 자연스럽게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도 컸다. 송원배 이사는 “대구FC가 2년 동안 울산을 상대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거칠 것 없는 대구가 대세다. 토요일 홈경기도 승리가 예상된다”고 했다. 첫 원정에 오른 정정아 엔젤도 “엔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기쁨을 전했다.

대구 홈에서 열린 결승 2차전,
엔젤 총 동원령
엔젤과 시민, 2만 여명의 ‘대구찬가’

‘대구FC 첫 우승!’

울산 원정 승리의 감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다음날 이호경 회장은 구단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선수들에게 또 한 번 감동 받았다. 이 회장에 따르면 울산 원정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에서 원정응원석을 보고 감동 받아,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것이다. 이회장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를 선물한 것도



엔젤원정대의 뜨거운 응원 현장

고마운데, 엔젤과 서포터스의 응원을 보고 더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며 “특히, 12월 8일 토요일 홈경기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수들이 약속했다고 하니 엔젤 역시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엔젤은 12월 8일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결승 2차전을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경기에 보다 많은 엔젤들은 물론, 주위의 지인과 협약단체와 함께 대규모 응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엔젤본부 임태진 상임부회장은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뛰고, 우리 엔젤은 죽기 살기로 소리 내어 응원하면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승할 수 밖에 없는 현장에 엔젤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는 열혈축구팬이 된 백무연엔젤은 “토요일은 경기장에서 즐기면서 응원석을 지킬까 한다.”며 “그라운드에서 에너지를 불어 넣으면서 지난 1년간의 묵은 감정들을 하늘로 날려야겠다. 한해를 마감하며 이 또한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의미 우승을 예고하기도 했다.

엔젤은 물론 시민들도 화답했다. 우선 엔젤사무국으로 공식 집계된 인원만도 수천 명을 넘었다. 경북대 1,200여명, 달서구축구협회 250명, 영남대 210명, 영남대 교직원 100여명, 영대의료원 100명, 삼성의 협력사 220명 VIPFC축구단 50명, 윤창열축구클럽 50명, 대구경북식품협회FC 30여명, 대구공고축구부 40여명, 여성축구단 30여명, 대구가톨릭대 30명 등이 참석하겠다고 미리 연락이 왔다. 이외에도 추가로 경기장을 찾겠다고 사무국으로 연락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엔젤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당일 엔젤존을 가

득 채웠다. 실제로 갑자기 불어닥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유료관중만 1만8천 여명, 초청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여서 대구스타디움이 모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특히, 이날 엔젤존에서는 경북 경산시 사회인축구단인 VipFC축구단(회장 공민제) 회원 30여명의 엔시오 단체가입식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VipFC 단장을 맡고 있는 임태진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오늘 같이 행복한 날 단체 가입식을 갖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시민엔젤 엔시오의 활성화는 대구FC의 또 다른 우승”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입증하듯 이날 경기장은 기쁨과 환희 그 자체였다. 엔젤존을 가득 매운 엔젤과 시민들은 엔젤 깃발을 흔들며 ‘대구’와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했고, 연이은 골이 터지자, 대구스타디움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파도타기 응원이 펼쳐져 장관을 이뤘다.

바쁜 와중에도 경기장을 찾은 최고현엔젤은 “이런 멋진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엔젤클럽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엔젤의 일원으로 대구사랑과 지역사랑을 위해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은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쏟아진 엔젤의 응원

경기장을 찾지 못한 엔젤들도 ‘우승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축하의 메시지로 달랐다.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다”는 조영래엔젤은 “열심히 정열을 쏟는 수많은

지인들과 훌륭한 대구의 1등 시민들을 볼 때 ‘과연 이런 모임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일원이라는 것에 뿌듯하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서울 출장 가는 길에 우승 소식을 접한 조두석 엔젤은 열차 안에서 기쁜 마음에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고 한다. “축하합니다. 서울 가는 열차에서 우승소식을 보네요. 우승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라 서울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혼자 기뻐할 조두석 엔젤의 표정이 안 봐도 비디오다. 이날도 어김없이 대구경북 대표 수제 맥주 ‘디 퍼스트’를 무상으로 지원한 문준기 엔젤은 “이제 우승컵을 들고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됐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되어간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라고 드라마틱한 한해를 정리했다. 엔젤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경환엔젤은 “사정상 TV보면서 열심히 응원했지만, 화면으로도 대구의 저력과 ‘대구FC엔젤클럽의 힘’을 새삼 전하게 느꼈다”며 “모두 수고하셨다”고 엔젤의 힘을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축하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엔젤클럽 발기인 멤버 중에 한명인 배성혁엔젤은 “상해 출장 중 좋은 소식에 힘이 난다”며 “엔젤 출범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엔젤은 하나의 큰 흐름이 됐다”고 해외에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해외 나들이가 잦은 안용모 엔젤은 미국에서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시민구단 대구FC화이팅! 대구엔젤 멋져부러요. 우리 엔젤의 끊임없는 응원과 지원 그리고, 대구FC선수들의 피와 땀.

대구FC 연속골에 파도타기 응원! 대구스타디움은 열광의 도가니

제가 대구FC엔젤인 것이 자랑스럽네요!”

최근 엔젤에 가입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민엔젤이 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1만8천여 명의 운동장 관중, 그리고 경기장 밖에 가득한 응원의 기운! 이길 수 밖에 없었네요”

여기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FC 구단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인이 엔젤이기도 한 김형동 대구시 대변인은 “엔젤회원님들 행복하시죠! 여러분들께서 큰일을 내셨습니다. 대구FC우승의 주역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행복해했다. 또 대구FC의 이도현미래기획실장은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여 주신 은혜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대구FC의 우승과 엔젤의 활약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식지 않았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대구FC의 우승을 통해, 활기를 얻었고, 엔젤은 자부심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다. 대구 외에 타 지역 엔젤들도 기쁨에 젖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운찬엔젤은 “서울에서도 대구우승이 화제가 됐다. 대구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타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문학박사 김유석엔젤은 “경기 다음날 조기축구회에서도 온통 대구FC에 대한 얘기였다.”며 “대구FC는 올 한해 저에게 감동을 선물했고, 대구엔젤클럽은 올 한해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다”고 대구법으로 경기가 끝난 후의 감동을 설명했다.

한편, 평소 경기장을 자주 찾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던 김대엽엔젤은 대구FC의 우승과정과 엔젤의 활약, 그리고 자주 찾지 못한 마음을 ‘사자성어’ 형식으로 정리해 화제가 됐다. 엔젤단톡방에 게재된 김대엽 엔젤의 글로 우승과 함께 한 엔젤의 12월을 정리한다.

매번루저 항상외면 마음몽쳐 천사되고
불꽃응원 원정사랑 축구기량 일취월장
선수엔젤 하나되어 뭉쳐보니 천하무적
승승장구 우승쟁취 대구축구 대구희망
대구엔젤 대구변신 헌신회장 봉사엔젤
존경감사 소심지린 

- ① 대구FC 선수들이 FA컵을 들어올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 ② '이 기분이 바로 우승의 맛!' 선수들로부터 행가래를 받고 있는 다이아몬드 엔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엔젤클럽 SNS 타고 훨훨

엔젤단톡방 540명 넘어 활동
최근 유튜브 통해 엔젤가치 제고

대구FC엔젤클럽이 지역의 유력한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교류도 확대되고 있어 엔젤의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엔젤클럽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다음 카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엔젤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온라인 소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향후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엔젤클럽의 대표적인 SNS수단은 역시 '엔젤톡'이다. 2016년 2월 24일 문을 연 엔젤단톡방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540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만큼, 엔젤인들에게는 생활이 된 '엔젤단톡방'. 그동안 가입한 엔젤이 탈퇴하더라도, 즉각 다시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엔젤들에게는 가장 소통이 잘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460명 선을 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신입엔젤들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마의 540명에 이르고 있다.

'톡방 500명'이라는 신화를 넘기 위해서는 고비도 많았다. 일부 개인적인 홍보나, 정치성향의 글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하듯 정리한 경우도 있었고, 방탈출자와 방초대자와의 끈질긴 줄다리기도 계속됐다. 특히, 2018년 FA컵 우승이 확정된 날에는 새벽까지 단톡방이 불이 날 정도였다. 그래도 승리의 기쁨이 컸던지 엔젤 회원들은 단톡방에서 우승의 기쁨과 환희를 함께 했다.

카톡을 보완 한 것이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다. 다음 카페는 안상영엔젤이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밴드는 구단 관계자와 엔젤 사무국 관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카톡에 비해 밴드와 카페의 이용률은 극히 떨어진 다. 이는 엔젤들이 대부분 중장년 층으로 SNS사용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밴드와 카페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카톡에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일부 불편해 하는 엔젤이 생기자, 엔젤사무국에서는 '밴드'와 '카페'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엔젤사무국에서는 '엔젤단톡방'은 공지 위주로 운영하고, 각종 세부 정보는 '밴드'에 올려 엔젤들이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밴드, 카페, 유튜브, 단톡방 등
SNS 소통 활성화
- 엔젤 직접 참여 확대

이를 위해 우선은 구단과 엔젤사무국이 공동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각종 정보를 집중해서 올린 후, 엔젤단톡방에는 '공지글'만 올리고 있다. 아울러 '밴드'를 자주 노출해서 엔젤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엔젤클럽 네이버 밴드 담당자인 손지훈 주임은 "새로운 엔젤가입이나, 수요만남의 날, 각종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네이버 밴드에 우선 올려놓고, 카톡에 이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며 "이런 방법이 정착된다면 카톡방은 요약된 정보만 제공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밴드로 확인하기 때문에 엔젤분들의 SNS 이용이 한결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런 노력 덕분에 밴드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초 100여명을 넘지 못하던 밴드 가입자가 현재 250명을 넘기고 있다.

네이버 엔젤클럽 밴드 <https://band.us/band/60663763>

다음 엔젤클럽카페 <http://cafe.daum.net/dgfcangel>

엔젤클럽 관련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14Soq1q1AwH9TBLIo2IgSw>
<https://www.youtube.com/channel/UCrGZCjrwpmU5Ebrk2OQHV1w>
<https://www.youtube.com/channel/UCk3EsGHX2sbKfFoNQmX6ooQ>



대구FC 엔젤클럽 유튜브
조회수 4,800회 상회 '인기'

향후 엔젤TV개국으로
엔젤, 엔시오 릴레이 현장과
스토리 영상 기대!

최근 들어 엔젤들이 이용하는 SNS 중 가장 뜨고 있는 것이 유튜브다. 엔젤클럽이 유튜브를 활용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구FC 축구단에 대한 심판판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엔젤사무국에서 각종 엔젤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Angelogist Kim'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엔젤번개팅', '엔젤소개영상', '엔젤찬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개인 채널로 올리는데, 엔젤단톡방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올려 독립된 '유튜브' 채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엔젤에게 유튜브가 보다 친숙하게 다가오게 된 것은 사진작가인 하제연엔젤홍보이사(레인보우스튜디오 대표)가 합류하면서부터다. 하 이사는 엔젤 1004포토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게 됐고, 이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브가 엔젤들의 새로운 홍보매체로 뜨고 있다. 채널 이름도 '대구FC엔젤클럽'이다. 실제로 이 채널에는 엔젤들의 인터뷰와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 그리고 FA컵 울산 원정 및 홈경기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생생하게 올라가 있어 엔젤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영상이 조회수만 1,000건을 넘나들고 있을 정도다. 이 수치는 유명한 유튜버들의 조회수에 비하여 적은 숫자이지만, 1400여명의 회원수에도 중장년층의 엔젤클럽인 것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수치다. 무엇보다 최근 엔젤클럽이 주력하고 있는 '엔시오'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클럽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현재 3군데 나눠져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일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구축, 향후 '엔젤TV'를 개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엔젤전체 차원에서의 전략 수립과 참여도 요구된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명예의 전당 엔젤프로필 촬영을 독려하기도 한 이호경회장은 "엔젤클럽의 확대에 따라 유튜브를 통한 생생한 정보제공이 절실하다. 현재 나눠져 있는 채널을 통일해 제대로 된 유튜브의 엔젤TV를 생각중에 있다"며 "엔젤과 엔시오들의 릴레이 현장과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이제 영상으로 릴레이 되면 엔젤과 엔시오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간외에도 현재 엔젤클럽에서 개발한 엔젤앱 역시 독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엔젤 가입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엔젤앱을 간단하게 다운받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QR코드로도 회원가입 사이트에 접속, 엔젤의 날개를 달수 있다. 월 만원 자동이체 하는 엔시오의 경우는 대부분이 엔젤앱을 통해 가입하고 있어, 새삼 엔젤앱의 위력을 느끼고 있다.

사비를 털어 엔젤앱을 개발한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은 "엔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엔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엔시오의 경우 그 수가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엔젤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엔젤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SNS 수단들이 생겨나면서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회원 확대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확대는 물론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We are the Champion! 대구시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순수시민구단 대구FC 첫 우승!
시민과 시민후원단체 대구FC엔젤클럽의 승리입니다.

FC바르셀로나 시민의 힘! 협동조합 소시오
대구시민의 힘은 시민엔젤 엔시오!

대구FC엔젤클럽과 엔시오가 위대한 시민을 기다립니다.



만원의 축구행복! 시민엔젤 「엔시오」가 되는 방법

안드로이드 회원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회원
앱스토어

참여방법

대구FC엔젤클럽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엔시오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엔젤사무국
053)602-7307

※대구FC엔젤클럽 모바일 앱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엔젤클럽의 엔시오 회원이 되세요!

엔시오는 대구사랑의 실천입니다!

‘엔시오(엔젤 + 소시오)’는 엔젤클럽과 스페인 프로축구팀 FC 바르셀로나의 소시오를 합친 것으로 엔젤클럽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월 1만원 자동이체로 대구사랑을 실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엔시오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혜택이 있습니다.

- ▶ 엔시오 카드발급 (K리그 대구FC 홈경기 관람)
- ▶ 엔젤 앱 가입/엔젤 가치공유
- ▶ 구동요청시 엔젤게터진 전승 (카톡, 메일 등)

대구FC 뒤에 엔젤클럽이 있다!

대구FC엔젤클럽은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모토로 지난 2016년 출범한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대구FC의 명문구단을 위해 시민엔젤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이상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원릴레이를 통해 1004명을 달성한데 이어 현재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대구FC엔젤클럽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동 22-1 (민통동, 호암아파트) 대구 불의 성

엔젤, 축구애(愛) 빠지다

대구FC 스폰서 축구대회서 준우승



대구FC 조광래 대표로부터 준우승컵을 받고 있는 엔젤들

나이 차이 극복한 값진 승리

엔젤활동과 함께 직접 축구를 즐기는 엔젤들로 구성된, 엔젤축구대표팀 ‘엔젤FC(엔젤풋볼클럽)’가 2018년 11월 10일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FC유소년센터에서 열린 대구FC 스폰서 미니축구대회(풋살) ‘대구FC愛빠지다’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대구FC(대표이사 조광래)가 한해 동안 구단을 후원하고 응원해준 스폰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 째를 맞는다. 엔젤FC를 비롯 대구은행, 대성에너지,크레텍책임, 대구도시철도공사, CGV, 대구경북의사축구단 등 총 12개 팀이 A,B조로 나눠 예선전을 거친 후 결승을 치렀다.

스폰서 초청 축구대회인 만큼 나이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장년층이 대부분인 엔젤FC로서는 부담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체력부담으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며, 부상선수까지 나오면서 힘든 일정을 소화해 냈다. 올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젊은층에서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엔젤 차원에서 성적보다는 함께 즐기자는 차원에서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대신, 엔젤클럽은 이번에는 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진 이후부터 단톡방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그 과정을 즐겼다. 먼저, 단톡방을 통해 선수를 모집한 결과 천자우엔젤자문위원(에슬린 대표), 안상영엔젤(광진종합건설대표), 정소영엔젤(창성산업 대표), 박주현엔젤(대구과학대 교수), 김유석엔젤(김박사 국어연구소&진로진학컨설팅 소장), 조병래엔젤(디자인해밀 대표), 양중호엔젤(수성구축구협회장), 윤창섭엔젤(GOLDEN-B 대표), 금윤식 엔젤(골든브릿지 대표), 양승혁엔젤(인문사 대표) 등 엔젤이 자원했고, 엔시오이자 양중호엔젤의 아들인 양지현군(3사관학교 재학중)과 엔젤사무국 손지훈 주임이 젊은피로 가세했다.

첫 경기는 대구경북의사축구단과 맞붙었다. 지난 여름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초청축구대회에서 경기를 치러 본 팀이었다. 젊은 피로 구성된 의사축구단과 고전이 예상됐지만, 3 대 0으로 완승을 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평소 주말마다 축구를 해온 천자우 자문위원이 2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앞서갔고, 박주현 엔젤이 3번째 골로 승리를 확정했다.

이어 열린 대구FC(직원)와의 경기 역시 만만치 않았다. 축구에 익숙한 대구FC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과의 경기에서는 접전 끝에 마지막에 가서야 승부가 났다. 양중호엔젤이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후 대구FC 김홍섭대리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밀고밀리는 경기를 펼쳤다. 결승골은 김유석엔젤의 발에 나왔다. 김유석 엔젤은 재치있는 힐킥으로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를 속이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2연승이었다.



‘우린 아직 청춘이야’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인 엔젤

예선 3차전은 대성에너지B팀이었다. 기업팀 특성상 평소 자주 발을 맞춰 볼 것으로 예상돼, 힘든 경기가 예상됐다. 하지만, 엔젤들은 경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조직력이 살아났다. 3 대 0으로 3연승을 내달렸다. 오전에만 3경기를 치른 탓에 체력적인 부분이 염려됐지만, 엔젤FC의 승리는 오후에도 계속됐다. 기업 팀인 크레텍책임 B팀과의 경기 역시 2 대 0으로 승리하며 4연승을 기록했다.

예선 마지막은 CGV팀이다. B조에서 엔젤FC와 마찬가지로 4승 전승을 기록 중이었다. 팽팽한 경기가 계속됐지만,

엔젤FC의 패스가 살아나면서 1 대 0 승리, 5연승으로 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이 경기에서 기존 엔젤들의 관록도 관록이었지만, 젊은 피 양지현과 손지훈 주임의 활약도 큰 힘이 됐다. 아버지를 따라 엔시오가 된 양지현은 골키퍼로 연이은 선방쇼를 펼치면서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어릴 때 꿈이 축구선수였다는 손지훈 주임도 근성 있는 플레이로 태클까지 하는 등 외모와 다른 플레이로 팀에 큰 보탬이 됐다.



엔젤FC와 엔젤들이 대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구로 하나된 하루 모두가 승자!

대구FC 스폰서들과 함께 한 뜻 깊은 하루

결승전 상대는 대구도시철도공사 A팀이었다. 체력이나 나이 등으로 봐서 엔젤FC가 밀릴 수 밖에 없는 경기였다. 하지만, 계속된 선전에 엔젤들도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조직력이 살아났고, 짜임새 있는 경기로 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선제골도 엔젤의 몫이었다. 상대 오른쪽을 파고들던 천자우 자문위원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뛰어들던 손지훈 주임이 헤더골을 터뜨렸다. 지켜보던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선제골 이후 전반을 리디하며 마쳤던 엔젤FC는 후반들어 선수교체로 팀이 흔들리면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상승세를 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엔젤FC를 밀어붙였고, 문전혼전 중 역전골을 내주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하지만, 나이 차이를 극복한 대단한 '준우승'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천자우자문위원은 5골을 기록했고, 김우석 엔젤도 2번의 결승골로 기여했다.

엔젤FC 감독을 맡은 안상영엔젤은 “오늘 우리팀은 놀랄 정도의 조직력으로 최상의 경기를 펼쳐 만족한다.”며 “우승도 좋지만 결과 보다는 대구FC를 후원하는 스폰서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행복하다. 시민구단을 후원하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이 우승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참가자들이 '대구FC애빠지다'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준우승을 기념하는 조광래대표와 엔젤FC

또 엔젤들은 운동장에서 맘을 같이 흘리며 몸으로 하나가 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윤창섭 엔젤은 “정말 모처럼 공을 찼는데, 엔젤들과 함께 맘을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운동장을 찾은 양승혁 엔젤도 “내년에는 준비를 잘해서 팀에 기여도 하고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 가족과 함께 해서 더 좋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족저근막염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정소영엔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선수들과 함께 했고, 안홍윤 엔젤, 백을수 엔젤도 경기장을 찾아 엔젤선수들을 응원했다. 

대구FC엔젤, 금복문화상 수상!

지역스포츠문화 발전 기여 인정 받아 ‘큰 기쁨’

국내 최초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해, 시민구단 후원방식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상인 제32회 금복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5년 공식 출범, 대구FC를 후원하고 응원해 온 대구FC엔젤클럽은 그동안 대구FC의 1부 승격과 잔류를 함께 하면서 ‘축구사랑’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엔젤클럽의 출범배경과 운영방법, 그리고 자체 발간하고 있는 매거진에 대해 타 시민구단의 벤치마킹 요청이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구)으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 받아 ‘제 32회 금복문화상 특별상’을 수상,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금복문화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동구 금복문화재단 이사장은 “대구FC엔젤클럽은 우리지역 축구단인 대구FC와 지역 스포츠 문화발전에 새바람을 일으켜 이번에 특별상을 시상하게 됐다”며 이호경회장과 회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금복문화상 시상 현장 (이호경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거 대구FC 이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동구 이사장은 “한 때 대구FC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로서 엔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반드시 성공해서 잃어버린 대구의 자존심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늘 엔젤클럽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경회장은 “큰 상을 주신 김동구이사장과 선정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가 다시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이날 엔젤클럽에서는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박동규·서정원 부회장, 김성열 자문위원을 비롯 많은 엔젤들이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쁨을 함께 했다.

금복문화상은 1987년 제정된 이래 해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을 선정해 시상해왔

다. 올해에는 대구FC엔젤클럽과 함께 문학부문 박윤배(시인), 미술부문 노태웅(서양화가), 음악부문 이강일(트럼펫연주자, 지휘자)씨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1 금복문화상 수상을 기뻐하는 엔젤클럽 회원들 (왼쪽에서부터 김완준, 이상섭, 박동규, 백무연, 이호경, 김규정, 김성열, 서정원, 강정영, 양승혁 엔젤, 김종두 총장)
- 2 이호경 회장이 금복문화상을 수상 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엔젤클럽 축구사랑 지역 의료계로 확산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엄태건 엔젤상임부회장이 이경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장(오른쪽)에게 엔젤사인볼을 전달하고 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응원, 후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후원단체 '대구FC 엔젤클럽'은 지난해 11월9일 대구가톨릭 대학병원(의료원장 이경수 신부)과 상호협력 및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8일에는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과 MOU를 체결, 축구사랑의 열기를 의료계로 확대했다.

협약체결로 엔젤클럽은 앞으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며 대구FC 프로축구단 홈 경기 시 입장권을 지원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엔젤클럽 회원 및 가족들에게 다양한 의료지원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과 엔젤클럽이 2019년 전용구장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축구문화를 만들어가자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수 의료원장이 엔젤클럽 회원으로 가입, 그 의미를 더했고, 가족 모두 홈경기는 물론, 어웨이 경기까지 운동장을 찾아 응원하는 열혈팬 허만수(중앙공급실 근무)씨가 엔시오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의료원장은 “‘대구FC를 통해 대구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에너지를 솟아오르게 한다’는 엔젤클럽의 조성 취지에 공감하였다”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한 정신운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권오춘 병원장은 “엔젤클럽의 홍보영상을 보고 회원들의 활동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며 “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엔젤과 엔시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엔젤클럽 이 회장은 “역대 최고 성적 1부 리그 잔류, 창단 첫 FA컵 결승 진출 등으로 대구FC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톨릭대병원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어 힘이 솟는다”며, “앞으로 엔젤클럽이 대구FC 후원을 넘어 대구사랑 운동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경 회장이 윤성수 병원장(오른쪽)과 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의료계의 축구사랑 열기 대구사랑 정신의 시티즌 오블리주 공감 선도

이에 앞서 업무협약을 맺은 영남대병원 윤성수 병원장은 즉석에서 엔젤클럽 가입의 뜻을 밝히고 “대기업구단이 아닌 시민구단 대구FC에서 조현우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선수를 배출한 데는 엔젤클럽의 응원과 후원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며, “병원 직원들에게도 엔젤클럽의 뜻을 전해 엔시오 가입 등 천사의 날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지역의료계의 엔젤클럽 동참에 이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약으로 엔젤클럽 활동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함께 대구시민의 삶이 건강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11월 현재, 연 1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엔젤 1,300여명을 확보한 엔젤클럽은 축구동호인과 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구축구전용구장을 만원(滿員)으로 채운다는 ‘만원의 만원(滿員)’ 캠페인을 전개, 월 1만원을 후원하는 ‘엔시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엔젤클럽은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상공회의소, 국제로타리 3700지구, 대구시 공무원노조 등 20여개 기업 및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축구를 넘어 대구사랑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대구FC엔젤클럽과 영남대학교병원이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회 실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총재 반응석)

는 지난해 10월 대구FC와 전남드래곤즈와의 K리그 경기가 열린 대구스타디움에서 브랜드이 행사를 갖고, 로타리와 대구FC, 엔젤클럽 발전을 기원했다. 국제로타리의 '세계소아마비의 날'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소아마비퇴치를 기원하고 '로타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로타리안과 회원가족, 지구 임원 등 대구시민을 포함한 8000여명이 참여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브랜드이를 맞아 로타리안과 가족 10여명이 엔젤과 엔시오에 가입, 시민구단 대구FC의 활성화와 스포츠를 통한 지역 봉사를 위한 상호 협력의 모범을 보였다.

반응석 총재는 "로타리안과 엔젤은 봉사와 기부로 실천하는 대구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오늘 국제로타리 3700지구 가족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대구FC가 전담을 이기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기분 좋게 마쳤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협약을 더욱 공고히 하여 대구사랑운동에 탄력을 붙여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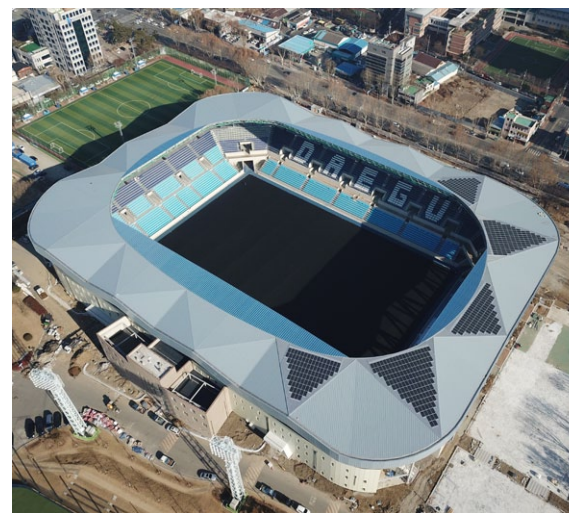
Angel Life



▲안용모 엔젤(한국철도건설협회 부회장 및 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철도건설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 현장답사와 동해선 남북철도연결에 대한 언론홍보 등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엔젤클럽 회원이자, 대구시 체육진흥과장인 김형동 엔젤이 지난해 12월 대구시 인사에서 대구시 대변인으로 영전했다. 엔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인 김형동엔젤은 그동안 대구FC에 대한 남다른 지원으로 시즌 최고 성적과 FA컵 우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 개장할 대구축구전용구장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대구FC와 지역 축구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엔젤클럽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3일 대구축구전용구장을 방문, 경기장 건립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중석 등 각종 시설물을 둘러봤다.

엔젤들은 "말로만 듣던 경기장에 미리 와 보니 꿈같았던 축구전용구장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FA컵 우승과 축구전용구장 개장으로 대구가 진정한 축구도시가 된 만큼, 이 경기장을 가득 채울수 있도록 엔젤 및 엔시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경엔젤클럽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대구FC FA컵 우승을 기념해 사비로 현수막 100장을 제작 대구시 일원에 게첨, 대구FC FA컵 우승을 축하했다. 이 회장은 "대구FC의 우승은 바로 시민과 엔젤의 승리"라며 "이 모든 기쁨을 엔젤은 물

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지난해 7월 조현우 선수의 월드컵 선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도 100장의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다.



▲**진덕수 다이아몬드엔젤**(대홍코스텍 <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뽑혔다. 진덕수 엔젤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인 10명 중 유일하게 여성 기업인이며, 대구경북 기업인으로도 혼자 이름을 올렸다.



▲**정소영 엔젤**은 지난해 11월 대구달서구 성서신협 강당에서 열린 달서구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엔젤 및 엔시오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엔시오 확대에 힘을 쏟았다. 달서축구협회 고문인 정소영엔젤은 이날 엔젤매거진 '시티 오브 엔젤'과 엔시오 가입 티켓을 배포하는 등 엔시오 확대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정소영엔젤은 엔시오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생활체육축구인들의 역할이 크다며 홍보했으며 엔젤클럽 홍보동영상을 달서구축구협회 밴드에 올려 모든 회원들이 보도록 유도했다.



▲**김규정, 김미숙 엔젤**이 지난해 11월 11일 조광래 대구FC대표이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상주상무와의 홈경기가 열린 이날 조광래 대표는 직접 엔젤룸을 찾아 “두 엔젤은 평소 경기장에서 김밥천사로 알려질 정도로 엔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다”며 “이에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감사패를 드린다”며 감사했다.



▲**최태원엔젤**(대구시축구협회 부회장)이 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엔젤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롱패딩 3벌을 선물했다. 최엔젤은 직접 사무국을 방문, 손지훈 주임에게 옷을 입혀주며,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송원배 엔젤** (<주>대영레데코 대표)가 2019년1월10일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송원배 엔젤은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분양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대표는 17년간 분양 마케팅 분야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택소비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양하기 위해 노력하며, 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기여해왔다.



▲**이호경 엔젤회장**은 지난해 11월 대구 전문건설협회를 방문, 김석 회장과 도재영 직전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엔젤클럽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석회장은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엔젤클럽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향후 엔젤 발전에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강원 CBS노컷뉴스**가 지난해 11월 강원FC의 활로모색을 위해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민구단을 살리고 있는 '엔젤클럽' 취재차 엔젤사무국 방문했다. CBS강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추천 받아 엔젤을 취재하게 됐으며 이호경회장으로부터 엔젤 출범 배경과 성공비결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취재했다. 특히, 엔젤존에서 기념촬영하고, 엔젤카 체험하는 등 엔젤활동에 감동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강원도에도 엔젤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엔젤**(대구시축구협회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대구신흥초 김동진, 이명주 선수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김동진 선수는 대구FC 선수로 활약하다 지난해 경찰청축구팀인 아산무궁화축구단에서 이명주 선수와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다.

▲**최길영 대구시교통연구원장**(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11월 이호경회장을 만나 엔젤자문위원직을 수락했다. 특히 최원장은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을 다이아몬드엔젤로 추천, 가입토록하는 등 엔젤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19년 대구FC 꽃길만 걸어라!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대표,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대표, 김완준 JID 대표,
권석원 동진건설(주) 대표, 김재홍 대호약품 대표, 김주성 광개토병원 원장,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대표,
박동규 (주)한국디자인모형 회장, 박해대 미래테크(주) 대표, 배성혁 덤프 집행위원장, 신용범 (주)한미산업 대표,
윤태경 바로본병원 원장,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정모경 정원자카텍 대표,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 등
엔젤클럽 부회장단이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GEL SPONSOR

강은주 한국일보 부장, 강정영 뉴스웨이대구경북 본부장, 권일경 (주)위드 대표, 금윤식 레드피아노,
김강수 푸르덴셜생명보험, 김국경 (주)세영 대표, 김규정 삼성생명, 김동규 (주)범서 대표, 김미숙 주원 대표, 김세중 Amway,
김용범 (주)에스알 대표, 김재엽 (주)하우스탑디앤씨 대표,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대표, 박경환 변호사, 박관식 비에스치과 원장,
박기자 무영 대표,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주현 (주)국제시스템, 박현주 장아푸드 대표, 박혜영 대구FC엔젤클럽 이사,
배문구 승창침장 대표,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대표, 서태현 (주)산동개발 대표, 송원배 대영레데코(주) 대표,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대표,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윤창섭 GOLDEN-B 대표, 이상섭 조아전자(주) 대표,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이태훈 (주)애드애피알스미스 대표, 전성렬 동양OA 대표, 정소영 (주)창성 대표,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대표, 조용호 (주)어팩시스템 대표, 최경목 수성정비센타 대표, 현정규 (주)영진기공 대표



DAEGU FC REPORT

2019 올해도 우리 챔피언!



‘안녕! 포레스트 아레나!’

대구FC, 3월 9일 제주와 홈개막전!

3월 1일(금) 전주 원정 시작으로 9개월 대장정 3월 9일(토) 제주 상대로 포레스트 아레나 개장 경기

대구FC의 2019시즌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는 3월1일(금)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우승팀인 전북현대를 상대로 개막전을 가지며, 10월 6일(일)까지 정규라운드 33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라운드 일정은 정규라운드가 종료된 후 편성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망의 축구전용구장 시대를 연다. 포레스트 아레나에서의 홈개막전은 3월 9일(토) 오후 2시 제주유나이티드와의 2라운드 경기다. 16년간 정든 대구스타디움을 떠나 대구시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축구전용구장(가칭 포레스트아레나)으로 이동한다. ACL경기 또한 포레스트 아레나에서 치를 예정이다.

한편, 올 시즌부터는 효율적인 중계방송 편성을 위해 주중경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분산 개최하고, 각 팀당 1회씩 평일 금요일 홈경기를 개최한다. 시즌 첫 평일 금요일 경기는 3월 29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의 맞대결이다.

정규 라운드 일정은 약 30여개의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일정 가운데 가장 균형 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한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 ▲ACL 출전팀 일정 고려, ▲주말(토/일) 홈경기 분산 개최 ▲평일 금요일 홈경기 1회 개최 ▲정규 라운드와 스플릿 라운드 간 홈-원정 경기 균등 배정(불가시 정규 라운드 상위팀에 스플릿 라운드 홈 우선배정) 등이다.

지난해 FA컵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대구FC가 올 시즌 새 구장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지역 축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전지훈련지인 쿤밍에서 대구FC 선수들이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2019 DAEGU FC MATCH SCHEDULE

K LEAGUE 1 ● HOME ○ AWAY

3 MAR	1. FRI	14:00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9. SAT	14:00	제주	포레스트아레나
	17. SUN	14:00	울산	포레스트아레나
	30. SAT	16:00	경남	창원축구센터
4 APR	3. WED	19:30	인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6. SAT	14:00	성남	포레스트아레나
	14. SUN	14:00	수원	수원월드컵경기장
	20. SAT	14:00	포항	포레스트아레나
5 MAY	3. FRI	19:30	상주	포레스트아레나
	11. SAT	19:00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19. SUN	19:00	인천	포레스트아레나
	26. SUN	17:00	수원	포레스트아레나
6 JUN	2. SUN	19:00	포항	포항스틸야드
	15. SAT	19:30	강원	포레스트아레나
	22. SAT	19:30	서울	포레스트아레나
	29. SAT	19:00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7 JUL	6. SAT	19:30	경남	포레스트아레나
	10. WED	19:30	전북	포레스트아레나
	14. SUN	19:00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21. SUN	19:00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8 AUG	30. TUE	19:30	수원	포레스트아레나
	2. FRI	20:00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11. SUN	19:30	울산	울산종합운동장
	17. SAT	19:30	경남	포레스트아레나
9 SEP	24. SAT	19:30	강원	포레스트아레나
	1. SUN	19:00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14. SAT	19:00	포항	포레스트아레나
	22. SUN	17:00	인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10 OCT	25. WED	19:00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28. SAT	14:00	제주	포레스트아레나
	6. SUN	14:00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ACL SCHEDULE

AFC CHAMPIONS LEAGUE ● HOME ○ AWAY

ROUND	일자	대진	경기장
1	3. 5 (TUE)	멜버른빅토리	미정(원정)
2	3. 12 (TUE)	광저우에버그란데	미정(홈)
3	4. 10 (WED)	미정	미정(원정)
4	4. 23 (TUE)	미정	미정(홈)
5	5. 8 (WED)	멜버른빅토리	미정(홈)
6	5. 22 (WED)	광저우에버그란데	미정(원정)

대구FC 2019년에도 ‘약속의 땅’ 으로!

지난해 이어 남해, 中 쿤밍서 전지훈련
체력, 전술 훈련 통해 실전감각 익히며 구슬땀

창단 첫 ACL(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대구FC가 동계스포츠메카인 남해에서 새해 첫 훈련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단 45명은 지난1월 2일 대구 으뜸병원(병원장 이성만)에서 메디컬테스트를 실시한 후 남해로 향하며 내년시즌 준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13일까지 이어진 이번 훈련에서 선수단은 2019시즌 스피릿A 진출과 ACL에 대비, 체력 보강을 위한 기초체력 훈련에 집중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다양한 전술훈련을 실시, 실전 감각을 키웠고 기존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 간의 손발을 맞추며 조직력 강화에 주력했다.

선수들은 숨이 턱까지 차는 체력훈련에 다소 힘들워 했지만 올 시즌 지난해 보다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인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휴식시간에도 개인 체력훈련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선수들 스스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양한 전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속의 땅’ 남해에서 훈련을 마친 선수단은 1월16일 ‘봄(꽃)의 도시’로 불리는 중국 쿤밍으로 날아가 쿤밍에서 2차 훈련을 가졌고, 이어서 상하이에서 2월17일까지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중국 상해에서 2차 훈련, 3월 예정 ACL 대비

특히, 중국에서는 3월 예정된 ACL과 리그 개막을 앞두고 전술을 가다듬고, 연습경기를 치르면서 실전감각을 쌓을 예정이다. 남해 전지훈련에서는 정우재와 최영은, 임재혁 등이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골키퍼 조현우는 아시안컵 국가대표 출전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P급 지도자 라이선스 취득 차 브라질로 출국한 안드레 감독도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안드레 감독은 중국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조현우는 아시안컵 결과에 따라 합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겨울 전지훈련지로 이용하는 동계전지훈련 메카인 남해와 2016년부터 캠프를 차린 쿤밍은 대구FC에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다. 2016년 클래식 승격, 2017년 클래식 잔류, 2018년 FA컵 우승 등 상승세를 함께 했다. 남해와 쿤밍은 겨울철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천연잔디 축구장 등 쾌적한 체육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전지훈련지로는 최적으로 꼽힌다.



대구FC 선수들이 남해와 쿤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구FC, 이병근 수석코치

안드레 사단 합류

ACL무대 경험한 이병근 전 수원삼성 코치 영입

대구FC가 2019 시즌 안드레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어갈 수석코치로 이병근 전 수원삼성 코치를 선임했다.

새로 합류한 이병근(46) 코치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수원삼성, 대구FC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후 경남FC와 수원 삼성에서 수석 코치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수원의 AFC 챔피언스리그(ACL) 4강 진출에 일조한 이병근 코치의 영입은 2019년 ACL에 출전하는 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이병근 코치는 지난 2006년 수원에서 대구로 이적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코치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손을 잡아준 대구 구단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병근 수석코치는 안드레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소통의 중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코치는 “ACL에 처음 출전하는 대구FC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안드레 감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대구는 오는 2월 17일(일)까지 경남 남해, 중국 쿤밍, 상해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병근 수석코치 프로필

성명 | 이병근 | 생년월일 | 1973년 4월 28일
선수 경력 | 1996~2006 수원 삼성 블루윙즈 2006~2007 대구 FC
지도자 경력 | 2009~2011 경남 FC(스카우트) 2011~2012 경남 FC(코치)
2013~2018 수원 삼성 블루윙즈(수석 코치) 2018.9~2018.10 수원 삼성 블루윙즈(감독 대행)

대구FC, 세징야 + 에드가 콤비와 재계약

“포레스트 아레나에서 함께 아시아 무대 도전!”

조광래 대표이사, 새 전용구장과 ACL 무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비전 제시
세징야, 에드가 “대구에서 좋은 기억 많다. 새 전용구장에서 함께 역사 쓰겠다.”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와 ‘포드가’ 에드가가 대구FC와 재계약 포레스트 아레나를 누비게 된다. (사진은 중국 전후 장에서 엔젤연습복을 입고 파이팅하고 있다)

을 기록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팀 승격을 결정짓는 골을 성공시켰다. 2017시즌 7득점 7도움으로 K리그1 적응을 마친 세징야는 2018시즌을 최고의 한해로 만들었다. K리그1에서 8득점 11도움을 기록하면서 도움왕을 차지했고, FA컵에서 5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팀 우승을 이끌어 대회 MVP와 득점왕을 모두 차지하는 활약을 펼쳤다.

에드가도 지난 시즌 여름 이적시장 대구 유니폼을 입었음에도 FA컵 3골 1도움, K리그 8골 3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FA컵 결승 1, 2차전 모두 승부를 결정짓는 썸머골을 터트리는 활약을 펼쳤다.

포레스트아레나에서의 개장 경기는 오는 3월 9일(토) 오후 2시 KEB하나은행 K리그1 2019 2R 제주유나이티드전이며, 3월 12일(화)에는 광저우 헝다 타오바오를 포레스트아레나로 불러들여 팀 역사상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경기를 치른다.

두 선수는 지난해 대구FC의 FA컵 우승과 리그 7위 달성을 이끈 주역이다. 눈부신 활약을 펼친 만큼 시즌 종료 후 두 선수에게 많은 이적 제의가 왔다. 하지만 중국전지훈련 장소에서 조광래 대표이사가 새 축구전용구장인 포레스트아레나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무대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설득한 끝에 재계약에 성공했다.

FA컵에서의 활약으로 직접 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끈 만큼 두 선수도 긍정적이다. 재계약에 사인한 두 선수는 “대구에서 좋은 기억이 많은 만큼 새 전용구장에서도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세징야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승을 이뤄냈던 동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힘든 훈련 속에서도 즐거운 분위기”라며, 전지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는 팀의 역사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 지난 2016시즌 대구 유니폼을 입은 세징야는 그 해 36경기 11득점 8도움

대구FC, 제주 정태욱 영입

정우재와 맞트레이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비수 정태욱 영입

대구FC가 지난 1월 제주유나이티드로부터 아시안게임 대표팀 출신의 정태욱(22)을 영입했다. 정우재(27)를 내어주는 대신 정태욱+현금을 받는 조건의 맞트레이드다.

대구 유니폼을 입게 된 정태욱은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수비수로 각광받고 있다. 194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중볼 장악력뿐만 아니라 몸싸움, 빌드업 능력까지 두루 갖췄다.

꾸준히 연령대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2015년 JS컵에서 처음 태극마크를 단 이후 U-20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고, 지난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혀 조현우와 함께 대한민국의 우승에 일조했다.

‘골 넣는 수비수’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아주대 재학시절과 제주, 그리고 대표팀에서 수차례 공격에 가담해 헤더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대구에 입단해 3시즌 간 활약한 정우재는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정우재 선수는 팀을 떠나면서 이호경 회장을 통해 엔젤에 감사함을 전하고 올 시즌 대구에 오게 되면 엔젤에게 꼭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은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는 등 입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추후 중국에서 열리는 2차 전지훈련에 합류해 당글질을 시작한다.

정태욱 프로필

- | 생년월일 | 1997년 5월 18일
- | 키/몸무게 | 194cm/92kg
- | 포지션 | 수비수(DF)
- | 경력 | 2017 아디다스컵 U-20 4개국 국제축구대회 국가대표
2017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2017.12 제주유나이티드 입단
2018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대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요!’

대구FC, 2019시즌 신인 7명 영입 완료

자유계약 : 정영웅, 송준호, 황유승, 고태규, 박재경, 조우현
우선지명(U-18팀 현풍고 출신) : 박민서

대구FC가 2019시즌을 함께할 총 7인의 신인 선수를 새롭게 맞이했다.

대구FC는 자유계약선발로 정영웅(미드필더, 중앙대), 송준호(수비수, 중앙대), 황유승(수비수, 고려대), 고태규(수비수, 용인대), 박재경(수비수, 학성고), 조우현(미드필더, 청구고)을, 우선지명으로는 구단 산하 U-18팀(현풍고) 출신 박민서(미드필더, 현풍고 프로직행)를 영입했다.

가장 먼저 입단을 확정 지은 선수는 대구FC 산하 올원중-현풍고 출신의 박민서다. 박민서는 2018년 우선 지명으로 대구의 선택을 받고 곧바로 프로 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 볼을 소유하고 컨트롤 하는 능력이 좋으며 정교한 패스와 템포 역시 고교생 수준을 이미 뛰어 넘었다는 평가다.

대학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준 신인들도 대구의 부름을 받았다. 중앙대에서는 정영웅과 송준호가 대구 유니폼을 입는다. 정영웅은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고, 경기를 보는 넓은 시야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 드리블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다. 송준호는 활동량이 많고, 수비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것이 장점인 수비수다. 이 둘의 활약으로 중앙대는 2018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용인대 고태규는 다부진 체격과 좋은 발밑 기술을 가진 수비수로, 2018 U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끌며 수비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고려대 황유승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측면 수비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공수전환이 장점이다. 또한, 킥력도 탁월하며 동료들을 활용한 연계플레이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학성고 박재경은 중앙 수비수로 제공권과 속도, 수비 지휘 능력이 탁월한 선수이다. 190cm/80kg의 다부진 체격에 좋은 발밑 기술을 갖추고 있다. 청구고 조우현은 경기를 보는 넓은 시야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 드리블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로, 투지 있는 플레이를 펼쳐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민서는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에 입성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선배들과의 경쟁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아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계속)

한편 대구는 오는 2월 17일(일)까지 경남 남해, 중국 쿤밍, 상해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 신인선수 7명 프로필

- 정영웅** (97.04.23)
MF | 중앙대-중대부고 | 174cm/69kg
- 송준호** (97.12.16)
DF | 중앙대-장훈고 | 184cm/72kg
- 황유승** (96.05.10)
DF | 고려대-진주고 | 175cm/72kg
- 고태규** (96.08.02)
DF | 용인대-현대고 | 190cm/83kg
- 박민서** (00.09.15)
MF | 현풍고-올원중 | 175cm/68kg
- 박재경** (00.04.28)
DF | 학성고-장철민FC | 190cm/80kg
- 조우현** (00.05.01)
MF | 청구고-청구중 | 181cm/76kg





PHOTO ESSAY

챔피언의 라커룸!



태양의 전사들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팀,
축구들 통해 대구가 행복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감독 안 드 레

| 생년월일 | 1972.11.16
| 전소속 | Bragantino



코치 이 병 군

| 생년월일 | 1973.04.28
수원삼성 / 한양대



GK코치 이 용 발

| 생년월일 | 1973.03.15
인천UTD / 동아대



코치 최 원 권

| 생년월일 | 1981.11.08
대구FC / 동북고



2군 코치 루이즈마

| 생년월일 | 1972.11.24
U. D. Las Zocas



피지컬코치 베네디토

| 생년월일 | 1974.03.05
Atletico Clube Goianiense



전력분석/통역 이 중 현

| 생년월일 | 1987.01.08
김해시청



2군 통역 정 철 영

| 생년월일 | 1981.11.21
전주공고 / 경희사이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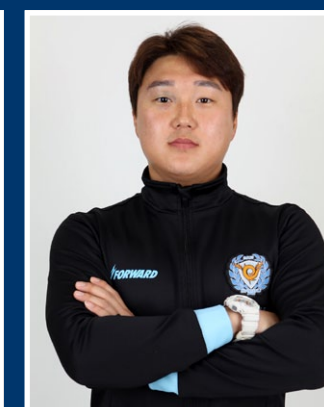
트레이너 노 현 욱

| 생년월일 | 1970.03.13
용인대 / 영신고



트레이너 박 해 승

| 생년월일 | 1984.03.11
대구FC U-18 / 대구대



트레이너 이 대 군

| 생년월일 | 1990.08.08
대구한의대



장비 고 강 훈

| 생년월일 | 1994.08.16
계명대



GK 조현우

1991.09.25 | 189cm 75kg
선문대 / 중대부고
172경기 1도움 217실점



GK 최영은

1995.09.26 | 189cm 78kg
성균관대 / 과천고
10경기 13실점



GK 이현우

1994.03.20 | 184cm 74kg
용인대 / FC하남



GK 이준희

1993.12.10 | 192cm 89kg
인천대
27경기 30실점



DF 박병현

1993.03.28 | 184cm 83kg
부산아이파크 / 상지대
24경기 2득점



DF 송기웅

1995.10.28 | 173cm 72kg
아주대



DF 김준엽

1988.05.10 | 178cm 73kg
부천FC / 홍익대
169경기 7득점 11도움



DF 정태욱

1997.05.18 | 194cm 92kg
제주UTD / 아주대
5경기



GK 이학윤

2000.03.09 | 189cm 68kg
포항제철고



DF 김우석

1996.08.04 | 187cm 74kg
신갈고 / 장안중
32경기 1득점



DF 홍정운

1994.11.29 | 187cm 76kg
명지대 / 개성고
61경기 5득점 2실점



DF 한희훈

1990.08.10 | 183cm 78kg
부천FC / 상지대
105경기 5득점



DF 송준호

1997.12.16 | 184cm 72kg
중앙대



DF 황유승

1996.05.10 | 175cm 72kg
고려대



DF 고태규

1996.08.02 | 190cm 83kg
용인대



DF 박재경

2000.04.28 | 190cm 80kg
학성고



DF 강윤구

1993.02.08 | 170cm 70kg
목포시청 / 동아대
18경기 1득점 1도움



DF 이동건

1999.02.07 | 183cm 69kg
신갈고 / 원삼중



DF 김진혁

1993.06.03 | 187cm 78kg
송실대 / 과천고
69경기 5득점



DF 김태한

1996.02.24 | 183cm 77kg
한양대 / 현풍고
3경기



MF 정선호

1989.03.25 | 182cm 78kg
성남FC / 동의대
92경기 4득점 3도움



MF 황순민

1990.09.14 | 178cm 69kg
쇼난벨마레 / 카미무라고
144경기 13득점 11도움



MF 예병원

1998.03.25 | 174cm 65kg
대륜고 / 대륜중



MF 고재현

1999.03.05 | 180cm 67kg
대륜고 / 대륜중
12경기 1도움



MF 류재문

1993.11.08 | 184cm 72kg
영남대 / 서해고
87경기 9득점 6도움



MF 박한빈

1997.09.21 | 183cm 80kg
신갈고 / 백암중
47경기 3득점



MF 오후성

1999.08.25 | 173cm 64kg
현풍고 / 진주중
1경기



MF 장성원

1997.06.17 | 175cm 70kg
한남대 / 통진고
9경기 1도움



FW 임재혁

1999.02.06 | 180cm 66kg
신갈고 / 백암중
8경기 1득점



FW 정치인

1997.08.21 | 182cm 71kg
대구공고 / 울진중
6경기



FW 정승원

1997.02.27 | 170cm 68kg
안동고 / 신태인중
40경기 4득점 3도움



FW 손석용

1998.09.04 | 179cm 75kg
현풍고 / 천안중



MF 조용재

1998.01.06 | 173cm 68kg
현풍고 / 석관중



MF 츠바사

1990.04.08 | 173cm 66kg
MFK ZEMPLIN MICHALOVCE
9경기



MF 정영웅

1997.04.23 | 174cm 69kg
중앙대



MF 박민서

2000.09.15 | 175cm 68kg
현풍고



FW 전현철

1990.07.03 | 175cm 72kg
부산아이파크 / 아주대
136경기 14득점 4도움



MF 조우현

2000.05.01 | 181cm 76kg
청구고



FW 에드가

1987.01.03 | 191cm 87kg
Buriram United
18경기 8득점 3도움



FW 세징야

1989.11.29 | 177cm 74kg
Bragantino
88경기 26득점 26도움



FW 김대원

1997.02.10 | 171cm 65kg
보인고 / 송실중
39경기 4득점 6도움

| 2019년 월 18일 현재 |





HALF TIME TALK

엔젤은 사랑입니다!





코르코바도 언덕에 세상을 감싸듯 우뚝선 예수상 앞에 23년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되는 내 젊은 날의 모습을 그 자리에 서 보았다.

안용모 엔젤

축구의 나라 – 브라질을 가다

“천혜의 미항”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아침 일찍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중남미 여행의 목적지로 축구와 삼바로 이름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공항에 도착했다.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히는 항구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이하 약칭 리우)는 포르투갈 정복자가 처음 발견 시 강으로 착각하여 "1월의 강"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리우에서 첫날은 예수상이 있는 언덕과 코파카바나 해변, 팡데아수카르를 보고, 다음날 시내를 중심으로 걸으며, 축구의 성지 마라카낭경기장을 가기로 했다. 리우에서의 여행은 23년 전 남미를 다녀간 기억을 추억해 보려니 참으로 아이로니컬하다.

코르코바도(Corcovado)언덕은 해발 704m의 절벽 꼭대기에 예수가 양팔을 벌리고 대서양의 관문인 리우시내를 굽어보는 형상이 브라질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자 리우의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면 하늘과 구름속의 리우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기암과 해변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 가히 예술이다.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되는 젊은 날의 그 자리에 다시 서 무르익은 내 꿈을 보았다.



23년 전과 오늘의 코파카바나 해변

엽서 같은 코파카바나 해변과 바위산
팡 데 아수카르(Pão de Açú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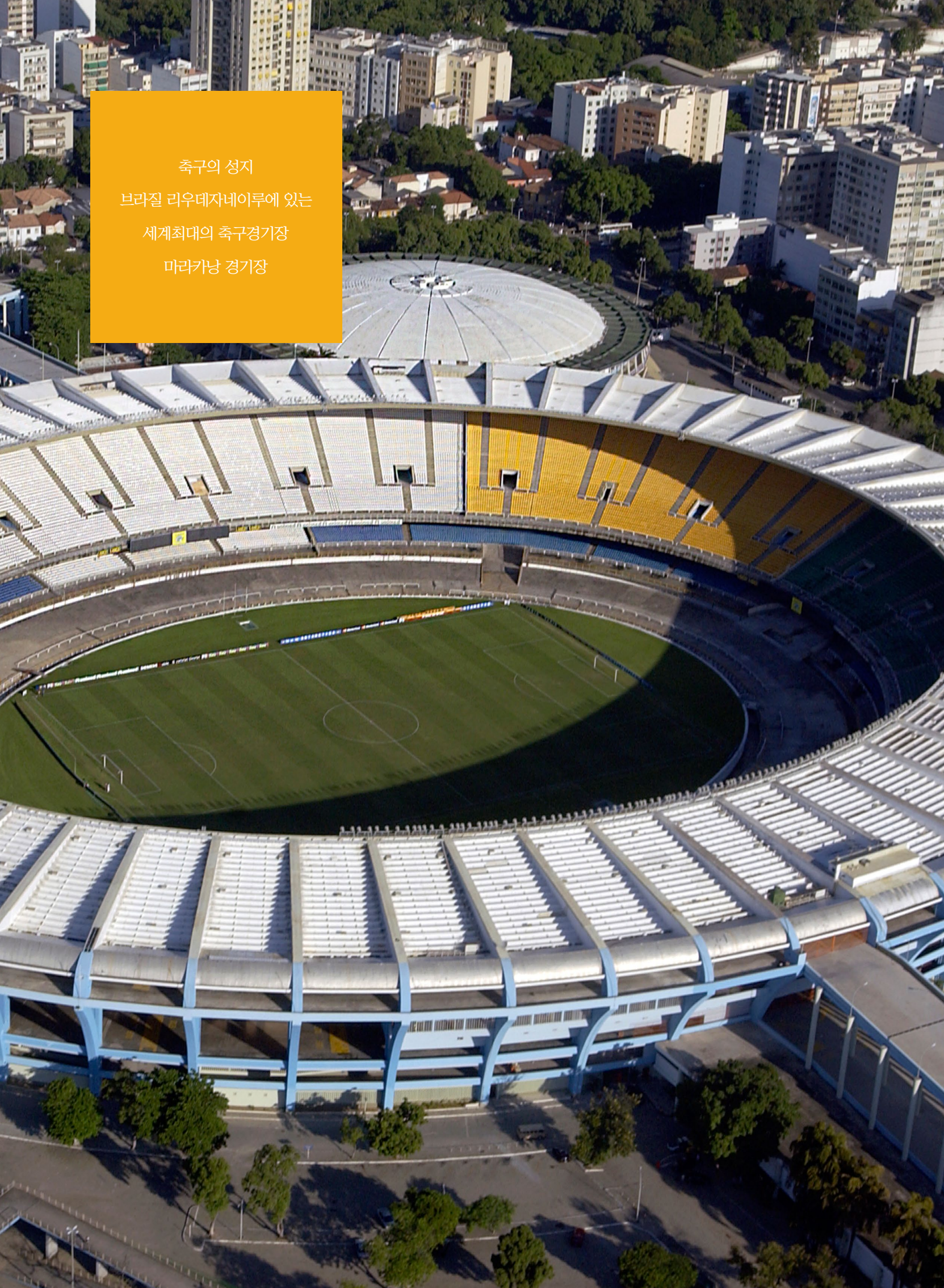
여행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코파카바나(Copacabana) 해변으로 옛 추억을 찾아 갔다. 5km나 되는 긴 백사장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뒤쪽으로는 고급 호텔을 비롯한 빌딩들이 병풍처럼 진을 치고, 앞에는 6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코파카바나 해변에 들어서면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고 건강미 넘치는 모습에 반하게 된다.

넓은 해변 곳곳에 축구장을 만들어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축구의 나라 브라질의 오늘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만든다. 모래밭 옆으로 길게 뻗은 해안도로와 모자이크 무늬로 타일을 깔아 만든 산책로, 해변의 고층 빌딩 등도 옛 모습 그대로이다. 리우의 매력을 3S(Sand, Sea, Sun)라고도 하지만 내가 찾은 날은 바람과 파도와 구름이 시샘을 하고 있었다. 396m 높이의 우람한 바위산이 불뚝 솟아 있는 팡데아수카르(Sugarloaf Mountain)에 오르려면 케이블카를 2번 타야 한다. 기암 정상에 서니 멀리 그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리우 항의 해안선은 정말 아름답다. 긴 해안선을 따라 파도들이 포말을 남기며 해변에 넘실대고 있었다.

코파카바나 넓은 해변에 모래사장은 모두 축구장이 되어 23년전에 여기에서 연습하던 키 큰 여자아이는 지금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축구를 과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파카바나의 넓은 해변 곳곳에 축구장을 만들어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 나도 축구의 나라 브라질의 오늘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가늠해 보았다.



팡데아수카르 바위산 아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함께 어울려 신나게 축구를 하고 가져간 비누샴푸와 땀수건들을 나누어주고 또다른 23년 후를 기약했다.



축구의 성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세계최대의 축구경기장
마라카낭 경기장

브라질 하면 축구

이 축구의 나라에는 마라카낭이라는 축구의 성지가 있다. 유럽에 웬블리가 있다면 남미에는 마라카낭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라카낭은 브라질을 넘어 남미 축구사에서 그 의미가 대단한 경기장이다. 마라카낭의 정식명칭은 에스타디우 조르날리스타 마리우 필류(포르투갈어: Estádio Jornalista Mário Filho)인데 이는 마라카낭을 건설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브라질의 저널리스트 이름을 딴 것이란다. 마라카낭은 이 지역에 살던 앵무새 이름이자 이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브라질 하면 축구다. 지난 하계올림픽이 개최된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시 올림픽 개 폐회식이 열린 마라카낭 축구경기장을 빼놓을 순 없다. 마라카낭 경기장을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하철 그린라인 2호선을 타고 마라카낭 경기장역(Maracana Stadium)에 내리면 저 만큼 원형경기장이 보인다. 이스타지우 두 마라카낭(포르투갈어: Estádio do Maracanã)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축구 경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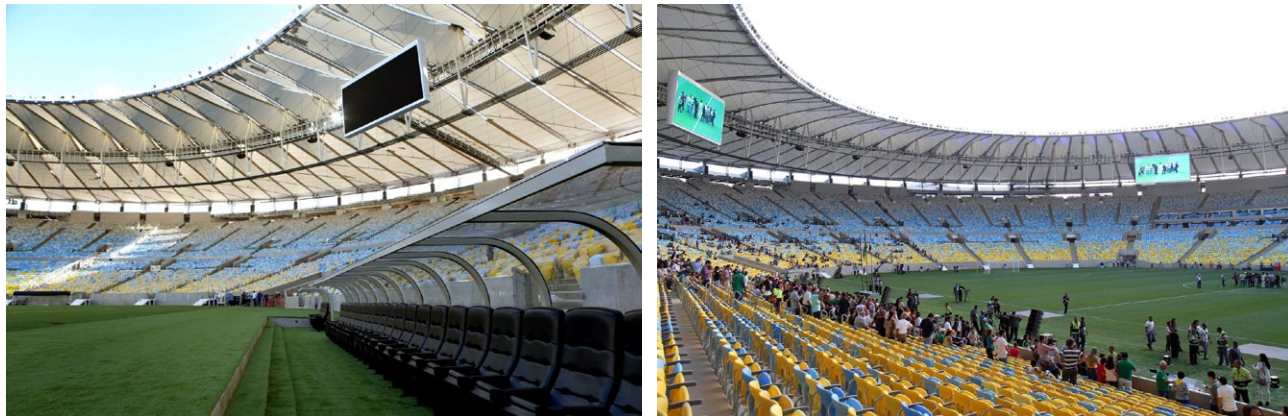
마라카낭 경기장(일명 펠레축구장)은 1956년 건립된 세계 최대규모의 축구장이다. 총연장 944m에 6층 규모로 20만명을 수용하도록 건축되었으나 현재는 78,639명으로 줄었으며, 1950년 FIFA 월드컵의 개최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50년 FIFA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승승장구한 끝에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렀다. 상대방은 같은 남미의 축구강국 우루과이. 브라질은 선수와 국민 모두 우승을 장담했지만 뜻밖에도 1대 2로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했다. 이는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브라질 국민들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축구를 떠나도 마라카낭 경기장은 리우데자네이루 시민들에게 아련한 추억의 장소이자 삶의 일부다.

또한, 이 경기장은 리모델링하여 2014년 FIFA 월드컵에서도 결승전 경기장으로 사용되었고, 2007년 팬아메리칸 게임, 2016년 하계 올림픽도 이 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2016년 하계 올림픽 당시 브라질이 자국의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땀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역대 월드컵 최다 우승국에 빛나는 축구 명가 브라질, 매년 1천여명의 축구 선수를 해외로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자국리그는 변함없고, 선수는 계속 넘쳐날 정도이니 과연 축구의 나라 브라질답다. 모두 세 살 때부터 축구 과외를 한다고 하니 과연 축구의 나라 브라질답게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마라카낭 축구경기장앞의 동상은 월드컵 우승을 기념해 1962년 세운 동상은 당시에 중앙수비수이자 주장인 벨레니이며, 2016년 월드컵 참가국의 국기들 속에 태극기가 선명하다.





마라카낭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 처럼 웅장한 음악에 맞추어 경기장으로 선수가 된 듯 출전하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보기도 했다.

축구의 성지 마라카낭 경기장

매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만원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스타디움 내부를 견학 할 수 있고, 실제로 잔디도 밟아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스탠드에 올라가 경기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축구장 투어입장료는 가이드투어시 30해알(약9,000원)로 1시간의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고, 가이드 없는 투어는 20해알(약6,000원)로 정해진 시간이 없다. 관객석과 그라운드 사이에는 열광적인 관객을 갈라놓기 위한 깊은 도랑이 패어 있다. 일정이 맞으면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유가 안되면 축구장을 견학을 해보는 것도 좋다. 경기가 없는 날인데도 마라카낭 주경기장 주변에는 경기장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일부 관광객은 입구에 세워진 브라질의 축구영웅 “일테랄두 벨리니” 동상의 모습을 따라하며 주위에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경기장은 1, 3, 5층이 개방되어 있으며, 1층만 구경하고 나오는 관광객도 있다. 1층에는 선수들의 샤워실, 현직선수의 이름이 있는 유니폼과 옷장을 구경할 수 있다. 옷장을 지나면 경기장으로 나가는 길이 나오고,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 기분을 느끼라는 듯이 신나고 웅장한 음악을 들으며 1층 경기장으로 선수가 된 듯 출전할 수 있다.

1958년 6월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열린 제6회 월드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주축국 스웨덴을 5:2로 이기고 우승했다. 그 이후 62년 칠레 월드컵, 70년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해 3회 우승한 나라가 영구 보유한다는 FIFA의 규약에 따라 줄리메컵을 브라질이 영구 소유하게 됐다.

경기장을 보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축구선수 마라도나의 숯하는 동상과 브라질 유명축구 스타들의 석고로 만든 풋 프린트가 있다. 또 3, 5 층으로 가면 기자석, VIP석등을 볼 수 있다. 복도에는 유명했던 선수들의 사진과 이력들이 화려하게 붙어 있고, 전설적인 호나우도 베베토 등 역대 스타들의 명장면들이 벽에 사진으로 벽화처럼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의 자랑스런 올드 유니폼이 유리관 속에 화려하게 전시 되어 있다. 각종 기념품과 유니폼 배지등을 판매하는 곳은 이곳을 찾는 이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축구선수 마라도나의 숯하는 동상과 선수 락커룸을 이용해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걸어두어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에서 사진 찍기! 아쉽지만 대구FC 선수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유명한 마라카낭 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팀은 1895년 창단된 플라멩고팀으로 소속리그는 Campeonato Carioca Brasil이며, 연고지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이다. 이팀은 캄페오나투 카리오카 우승 28회등의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이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 축구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를 다니다 지치면 원두를 갈아 뽑은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의 커피와 날씨와 잘 어울리는 시원한 맥주, 인디오들의 음료 과라나 주스는 시내 여행 중 발품을 털어주는 독특한 브라질의 맛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밤의 리우는 매력적이다. 거리의 크고 작은 바에서는 경쾌한 삼바와 보사노바 음악이 연주된다. 흥에 겨운 사람들은 마룻바닥을 비비며 삼바 리듬에 맞춰 온몸을 진동시킨다. 삼바쇼 역시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보고 즐길 거리다. 거기서 격정적으로 엉덩이와 몸을 따로 흔들며 대는 그들의 대열에 어깨를 마주하고 몸치를 흔들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축구 보다는 소매치기와 강도였던 것 같다. 23년 만에 다시 찾은 리우는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모두 여행자 하기 나름이 아니겠는가.



실내 전시장에는 브라질 유명축구 스타들의 석고로 만든 풋 프린트와 월드컵에서 우승한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다.

안 용 모

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Queen과 대구FC

"We are the champions!"

지난 2018년 가장 주목받았던 아티스트는 영국의 '전설' 인 록 그룹인 Queen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가 휩쓸고 간 세상은 온통 퀸의 노래와 이야기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영화 뿐 만 아니라 음악, 광고 그리고 퀸과 관련된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국내 문화계를 Rock했습니다. 퀸에 대한 세상의 그리움과 찬사는 올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행에 민감한 저 역시 뒷북치듯 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까 합니다. 사실 퀸과 관련하여 저에게도 잊지 못할 스토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아들과의 추억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예고편이 나올 때부터 저는 '나도 꽤찮은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자란 후로는 대화도 줄어들고, 얼굴보기도 힘들어 졌습니다. 아들 뿐 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로여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이미 품을 떠난 새라고 생각해 자연스레 소원해졌습니다.

그런 아들이 유별나게 보고 싶어진 것인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개봉을 앞두고부터였습니다. 퀸의 노래가 자주 흘러나오자 저는 집에 가서 예전에 아들과 함께 들던 퀸의 CD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창고처럼 쓰는 방에서 CD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 번 들어봤습니다. 아들 카톡으로는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예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아이하고 쌓은 추억 중에 몇 개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음악 듣기였습니다. 퀸의 베스트곡들이 수록된 'JEWELS' 앨범이 대표적이었습니다. 2004년 발매된 이 앨범은 퀸의 대중성 있는 노래들이 담겨 있어 일반인들이 듣기에 그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앨범을 구입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주로 아이와 잘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불을 끈 후 함께 누워 무슨 의식처럼 노래를 들으면서 가끔은 어설픈 우리말로 따라 부르며 덩굴고는 했는데, 지금도 퀸의 노래를 들으니 몰랐을듯했던 아이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들 녀석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얼마 전,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를 보고, 컴컴한 영화관에서 한참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언제나 '넌'이라며 단답형으로 답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 없던 아들의 일상에 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다는 것이 참 기뻐했습니다.



퀸은 한 번 더 저를 울렸습니다. 그것 역시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8일 FA컵 결승 최종전이 열린 대구스타디움에서였습니다. 우승이 확정되고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열광하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We are the champions' 노래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대구팬들의 눈물은 12월5일 울산 전 승리 후에 터져나왔습니다. 애드가의 역전골이 터지자 원정응원석에는 한 축구팬이 주체 못할 눈물을 흘려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는 '축구의 나라' 영국 출신 그룹인 퀸이 축구를 염두 해 두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축구 응원곡 하면 리버풀의 'You'll never walk alone'을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퀸의 이 노래는 특정팀이 아닌 우승의 순간, 세리머니 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가사 역시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We are the champions' (우리가 챔피언이다)

이만큼 확실한 메시지가 있을 까요? 그것도 실수와 불운, 그리고 치욕과 설움을 겪기도 했기에 더 찬란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 마침내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몇번의 실수가 있기도 했고)

I've had my share of sand kicked in my face (치욕과 설움을 겪기도 했지만)

But I've come through (나는 그 길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구FC의 지난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자 승리에 대한 환호는 곧 감동과 행복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그라운드 한 곳에 서서 저는 올 해 두 번째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퀸의 'We are the champions'는 이처럼 한해를 결산하는 찬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새로운 해를 맞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결과는 장밋빛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No pleasure cruise 하지만 그건 장미꽃 침대도, 유쾌한 유람선 여행도 아니었어)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이라고 합니다.

(I consider it a challenge before the whole human race 난 그게 전 인류 앞의 도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합니다.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그 끝, 'the end'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챔피언, 국내 리그 챔피언도 그 목표이겠지만, 명문자립시민구단, 시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단이 되는 것이 그것도 진정한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유행과 관계없이 퀸의 'We are the champions'가 다시 각종 스포츠 대회 우승세리머니로 불러 질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주인공이 대구FC이기를 바라는 것은 엔젤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품고 끝까지 대구FC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일 것입니다.



월드스타 조현우 선수 배출 등으로 대구FC에 대한 시민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엔젤클럽은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을 실천, 대구의 운이 상승(대운상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엔젤클럽의 대운상승 깃발)

메세나 사업 체육분야로 확대 돼야

중기(中企), 엔젤 참여 절실
대경연 김기철 연구원 엔젤활성화 방안 제안

— 대구경북연구원 김기철 연구원 —

축구도시 대구

대구FC는 2017년부터 K리그 클래식(2018년부터 'K리그1'로 개칭)으로 승격하면서 국내 유명 프로팀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K리그 1부 승격으로 인해 대구시민 역시 국가대표를 비롯하여 국내 K리그 유명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어 K리그 챌린지(2018년부터 'K리그2'로 개칭)와는 다른 차원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대구 관객을 사로잡았으며 이것이 관람객이 증가하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 2018년에는 월드컵을 계기로 조현우 같은 월드스타 플레이어 배출,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 7위, FA컵 우승, 포레스트 아레나 축구전용구장

완공 등 여러 가지 경사가 겹치면서 대구FC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포레스트 아레나는 국내 실정에 맞는 축구전용구장으로 생동감있는 축구를 관람할 수 있어 개장 전부터 벌써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축구 도시로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구FC가 대구시민의 구단이라는 일체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대구FC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구단으로서의 재정적인 여건 개선 필요

대구FC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시민구단으로 창단되었다. 그러나 시민구단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정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부족으로 인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없고, 힘들게 육성한 선수를 빼앗기기만 한다면 대구시민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이호경 엔젤회장이 중심이 되어 엔젤클럽이 결성되었고, 대구FC의 재정지원에 보탬이 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릴레이식 모금방식으로 인해 대구FC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로 엔젤클럽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엔젤클럽, 시민구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역사회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엔젤클럽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구FC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지원단체이자 대구FC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 존재가치를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금전적인 문제나 운영에 대한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없고, 오히려 자발적 후원 활동에 당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 대구FC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엔젤클럽의 이런 배경에는 대구의 문화갑, 조해녕, 김범일 등 전 시장들이 있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엔젤클럽의 운영에는 전 시장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고, 현재에도 물심양면으로 엔젤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엔젤클럽에 관심이 많다.

대구 is 구한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엔젤클럽 역시 국위선양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구문화의 번영을 위해 국채보상운동과 같이 자발적으로 대구FC의 운영자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재에 되살려 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헤쳐 나간다는 대구만이 가진 문화이자 정신이다. 엔젤클럽은 이러한 대구정신을 가진 모임으로 대구시민의 자긍심이라 할 수 있다.

대구FC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 한계

국내의 프로축구는 외국의 구단에 비해 역사가 짧다. 대구FC 역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대구FC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FC의 우수한 성적이 요구된다. 우수한 성적만이 대구시민의 애정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은 엔젤클럽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다. 대구FC와 엔젤클럽은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구FC의 성적이 엔젤클럽의 회원 모집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K리그 클래식 잔류 여부와 스타플레이어의 유무에 따라서 엔젤클럽의 활성화가 달려있다는 한계가 있다.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메세나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 메세나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는 대구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메세나의 목적이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원 범위를 체육분야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메세나운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후원조직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전반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이 때문에 메세나사업의 지원 범위를 체육분야까지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후원조직을 만들 수 있고 관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대구FC의 팬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개인회원 위주의 엔젤클럽 활동은 향후 그 성장과 지원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대두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엔젤클럽 활동의 전개를 위해서는 대구 대표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참여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통한 엔젤클럽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엔젤클럽의 자부심을 고취해야 한다. 엔젤클럽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후원사업은 후원금이나 물품을 제공받고는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엔젤클럽은 현재 자켓과 머플러, 조광래대표 사인볼 등 구단물품 증정, 후원금액에 상응하는 입장권 지급, 구단의 각종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선수단 사인회 초청, 축구 감상 교실, 스카이라운지 사용권, FC구단 내 스타플레이어 사인회, 가족방문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마련하고, 또 축구관련 사인뿐만 아니라 대구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회원들에게도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후원금은 최소한의 용도를 정해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유소년클럽 지원이나 엔젤클럽 홍보 등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엔젤클럽 후원금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도 받아 엔젤클럽 로고제작, 엔젤클럽 축구교실, 엔젤클럽 문화교실 등 엔젤클럽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엔젤클럽! 시민정신 재도약의 발판으로 거듭나길

엔젤클럽은 시민구단인 대구FC가 가지는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구만의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향후 대구시민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줄 것이다.



엔젤들이 대구축구전용구장 둘러보며 2019년에도 더 힘을 내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엔젤들이 소액으로 엔젤정신을 공유할수 있는 시민엔젤 '엔시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기철 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알아두면 돈 되는 자산관리 노하우

〈상속세 절세 및 금융자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 승계법〉

재무 상담으로 만난 많은 부유층 고객들은 자산관리 하는 최종목적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자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자산관리를 그런 관점에서 살펴 본다면 상속은 자산관리의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할 경우, 자칫 어렵게 모은 자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마치 결승점을 앞두고 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상속세의 계산구조와 절세방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1) 상속세의 이해

	상속재산의 가액	본래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추정 상속재산: 1년 이내 처분자산, 채무가 2억 이상(2년 이내 5억) 합산 증여재산: 상속개시 직전 10년(5년) 이내 증여한 재산
(-)	과세가액 공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저 5억~최고 30억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가업상속공제: 200억~300억
(=)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액공제	기납입증여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 공제 신고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3%
(=)	자진납부세액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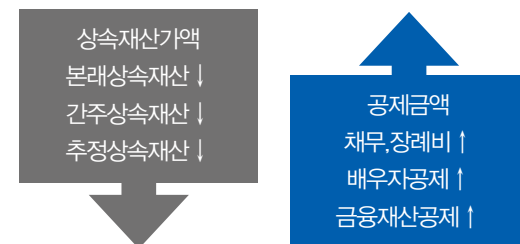
상속세 절세방안을 살펴보려면 우선 상속세 부과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과세가액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고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본래 상속하는 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합산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과세가액 공제에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가 포함되며 그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 공제,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세 부과체계를 보면 상속세 절세방안은 단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고 각종 공제를 높이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첫번째 방법입니다.

(표2) 상속세 절세의 원리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 이하	20	1000만
5억 초과~10억 이하	30	6000만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줄인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과세체계는 다릅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사람의 자산에 세율을 적용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취득한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산을 4명의 성인자녀에게 각각 25억씩 물려준다고 해봅시다. 상속의 경우 100억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93억에 세율 50%을 곱해, 약 42억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상속세를 제하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1인당 14억 5000만원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금액 25억의 각각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5억원은 과세표준 25억 5000만원에 해당하고 세율은 40%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자녀 1인당 16억 8000만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 10년(비상속인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증여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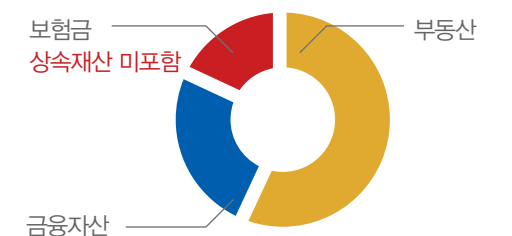
2. 보험 가입을 통한 상속세 절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유동성 마련 차원의 보험이라면,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를 가급적 자녀나 배우자로 하는 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할 때, 사전에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해 재차 증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로 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마련하거나 주식 증여 후 배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세금
본인 	본인 	자녀 	상속세 
자녀 	본인 	자녀 	세금없음
본인 	배우자 	자녀(상속인) 	증여세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다고 가정함



이외에도 상속세 절세를 위해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납세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 상속세는 상속받는 모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추후 배우자 역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받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을 모두 받고 그 금융자산을 활용해 자녀들에게 부과된 상속세까지 납부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세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에 관한 관심을 절세에 대한 관점보다는 가족끼리 논의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땀으로 모은 자산을 후대에 잘 승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상속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삼성생명 김규정 명인



★★★★★
 Diamond Angel

다이아몬드

승리와 변치 않는 사랑의 상징

엔젤클럽,

대구FC와 함께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동구 금복주



정태일 한국OSG(주)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엔젤클럽 자문위원단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대표	송준기	지산치과원장
김성열	(주)아나 대표	엄달현	(주)대창엠코 대표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대표	이병호	(주)대구스텐레스 대표
김충환	김창준한비미래재단	장익현	변호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주대중	함창정학재단이사장
도재영	(주)웅진기업 대표	천자우	(주)에슬린 대표
박명수	명진금속 대표	하윤수	한국공조 대표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 부총장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원장	허흥만	(주)명성골프 대표
반용석	반치과 원장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대표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대표
김완준	(주)JD 대표		

엔젤클럽 부회장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석원	동진건설(주) 대표	신용범	(주)한미산업 대표
김재홍	대호약품 대표	윤태경	바로본병원 원장
김주성	광개토병원 원장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대표	이승현	(주)동서개발 대표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회장	정모경	정원자카텍 대표
박해대	미래테크(주) 대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대표
배성혁	DIMF 조직위원장	최익진	(주)풍국면 대표
서정원	(주)대선 대표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대표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김광배	디에스종합건설
강민정		구미숙		김광수	한맥창호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구본도	렉서스 대구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강병호	신경일염직	권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규정	삼성생명
강보철	일진수지	권대열	(주)부원	김규혁	포워즈시스템
강삼동	에이치	권병규	화인산업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기완	경북염료
강성민	전기감리사	권상현	흥천사	김기철	
강신일	대영리츠건설	권석원	동진건설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강은주	한국일보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대구지사	김길생	동화주택
강의원	일신건설엔지니어링	권승진	인터볼고CC	김남호	더원창호
강일규	대서산업(대서환경)	권시원	중산도시개발	김니나	세영회계법인
강일만	세신엔지니어링	권업	테크노파크	김대경	
강정숙	동재건설	권연숙	교육장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권영갑	(주)EMS	김대진	
강준기	포머스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김덕선	우진비철
강철원	예일	권오상	변호사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강태중	한도엔지니어링	권오상	(주)대광솔라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강해구	경민테크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김동구	(주)금복주
건축사협회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고경집	부부엔젤	권원강	교촌그룹	김동규	범서
고민환	주식회사 상산건설	권유미	서양화가	김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고백희	디자인 감	권일경	(주)위드	김동연	우성디엔에이
고삼규	보광병원	권장대	세화정공	김동용	(주)씨엠
공영우	동성건재판매	권재원	아우노	김동우	World First
공윤욱	선진회계법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동음	(주)조광종합포장
공인욱	백향에스엔피	권정미	S라인포톤테라피	김동재	골마켓
공제영	(주)신성건설	권주택	(주)갑산전기	김동조	플레이워즈
곽기철	지우 씨앤디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말분	부부엔젤
곽덕섭	(주)태명개발	권혁기	(주)산동개발	김명수	대남건설
곽동호	곽치과병원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명용	명성
곽신혁	Eco Farm	권호겸	(주)풍림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곽재환	중산도시개발	금윤식	골든브릿지	김명준	올플디앤씨
곽재훈	운경재단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김명진	한신특수가스
곽중준	메리츠 화재(KMI 에셋)	김강수	푸르덴셜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곽준성	삼성전자	김경태	리더스 금융판매	김묵진	대구서부지청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미경	(주)에코파이코텍
구건우	PR네트웍스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김미숙	주원
구덕모	중소기업 복지지원단	김광덕	대구시 사격연맹	김민석	서한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김민선 의사회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재엽 하우스탑디앤씨
김범대 미플러스 피부과	김시보 백두산업	김재우 삼일기업
김범현 한라이앤씨	김시승 (주)다원	김재필 주안
김병렬 오성고속관광	김안순 화이트골드	김재필 산록도시락
김병오 필즈학원	김애경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김양숙 교보생명	김재현 삼성화재
김보찬 리치하우스	김연창	김재홍 대호약품
김상길 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정달 현대동대구써비스
김상덕 부경TS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정미 멀티애드
김상도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	김정수 경북대병원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영식 영진전공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상수 청운실험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김정철 경북대 모발이식센터
김상완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영주 (주)경북합판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영준 변호사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상원 부호케어원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영철 에스에스엘엠	김종원 금아의수족 보조기연구소
김상훈 모던테크	김영택 일월건업	김종철 (주)신흥버스
김상희 대상트 골프이시아폴리스점	김영화 (주)영화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석 삼덕아스콘	김영희 구병원	김종호 (주)케이원
김석호 한도식품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종환 (주)메디피아이앤씨
김선일 상일종합관리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성곤 호텔인터불고	김외경 아미코젠	김중희 웨딩하모니
김성관 이슬나라	김용규 창녕참우축산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성덕 소프템코리아	김용범 (주)에스알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성렬 대성건업	김용봉 (주)와이쓰리	김주형 웨딩쿨
김성률	김용식 (주)청맥산업	김주환 (주)경안플랜트,경안솔라
김성열 (주)아나	김용운 (주)태하시스템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성준 지앤비 모터스 스카니아 공식딜러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우일 김뽕학원	김준홍 대양포장
김성호 (주)성산종합건설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중곤 ADT캡스
김세종 (주)천공산업개발	김원희 동경Tour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김세종 비즈니스컨설턴트	김유석 김박사국어연구소	김지건 의사회
김수현 한국청년회 대구지회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지미 (주)시마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의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진수 앤에이 골프
김소주 삼성생명COT	김이수 체리티홀딩스	김진수 (주)천우
김소조 동촌홍 중화요리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승근 대구일보	김인식	김진일 무창산업
김승우 KS상사	김일권 삼성생명	김창욱 새삼종합건설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김창호 신호전기	노기원 태왕이앤씨	박경진 헤나 씨앤디
김창희	노병수 영남일보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김춘희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박관식 명진BS치과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근백 (주)엠엑스
김치호 (주)도영건설	노정섭	박금화 서라벌대학
김태길 피앤에이	노주호 (주)대성아이디	박기양 세무사
김태수 자동차시대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박기원 아트건업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노혜영 부부엔젤	박기자 (주)무영
김태형 피앤에이	농협두류은행	박길상 남북의료기(DHC TOP)
김태호 공간포유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대진 (주)이비팜
김태훈 태경건설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김판권 (주)영산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	도건우 전)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박두천 경북대병원
김해용 인덕염공(주)	도상현	박래석 (주)삼우전자통신
김한만 서원종합건설(주)	도윤수 파사디골프	박명규 (주)우진설비
김현수 대호기업	도재영 (주)웅진기업	박명수 (주)명진금속
김현숙 한국의학연구소	두준옥	박미경 삼성요양센터
김현철 에이에이(주)	류광열 (주)원재산업	박민천 (주)다운PLUS
김형동 대구시	류시장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김형식 (주)동인전력	류영애 세무사	박병욱 달인의 찜닭
김호용 (주)건강누리	류형우 대구예총	박병준 에이치씨보광
김호준 준 애니팜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박석현 TBC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김홍대 한샘인테리어 전자관점	모미영 주원	박성욱 (주)삼송BNC
김홍석 디지털 신세기	문길남 신세계건설(주)	박성준 가족엔젤
김홍식 대경대학교	문문문 (주)디에스팩	박성진 꿈그린
김홍철 한청	문성균 홈센타홀딩스	박성호 굽강운수(주)
김환식 (주)한중 엔시에스	문수영 (주)애플애드벤처	박성훈 (주)피닉스건설
김희종 굿유니폼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박성희 (주)AK메디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문영일 (주)태흥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김희찬 PEGDYCCO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박소민 디자인그린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문종혁 (주)동화건설	박소이 미래테크
나상수	문준기 대경맥주(주)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남경원 (주)경원덴탈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민춘홍 한국PIPE	박승현
남병환 국제로타리3700지구	박건철	박승환 (주)처갓집 통닭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박경국 (주)성우아이디	박신영 하나투어
남재현 러버원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영석 계명대학교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박영준 삼성프린팅솔루션	박창훈 선경산업	배혜민 (주)팔도에프씨,토끼밀
박우용 대산라이팅	박철형 (주)한빛에너지	배호삼 (주)달구벌석건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춘영 인터볼고CC	백건호 경동BK
박운락 한청	박태민 뮤직라운지 펜트하우스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박원득 한봉금속	박태영 케이아이티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박원진 가인건설	박태정 주원조경	백무연 뷰티코하트/여성경제인협회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백복근 호텔라온제나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한상 갑을상사그룹	백서재 대영전자(주)
박은이 (주)슈만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박해대 (주)미래테크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박재관 제일푸드	박해동 강북 요양병원	백용환 미래테크
박재범 AIG어드바이저	박해연 유진재지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박재영 (주)헬시안디앤씨	박현경	백운일 (주)백광테크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박현욱 대구가톨릭대학교	백을수 국제경호센터
박점희 플라워아트한국화원협회	박현주 장아푸드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박정기 일신종합건설	박혜영 전)국어교사	백현석 더블유병원
박정민 칸여행사	박혜은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박정배	박홍철 (주)신흥메탈	변향숙 돈모닝 식당
박정희 세무사	박홍식 NS디자인	변화곤 삼화건업(주)
박종철 (주)우일건설	박희경 도미니크	서기수 즐거운세상
박종호 (주)삼정 종합 폐차장	박희진 은성북어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박종홍 금호개발	반용석 반치과	서상인
박종화 세보종합건설	반정욱 미르건축	서상협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방우정 리더스	서상화 현대개발
박준 계림물산(주)	방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서성도 독일SEO 세오
박준규 (주)이노커뮤니케이션	배극종 씨앤비건설	서숙영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배명수 근영토건	서순옥 부부엔젤
박준수	배문구 승창침장	서영득 색동가방
박중희 (주)TS스틸	배상원 상원종합식품,오대양식품	서용교
박지훈 고령축산물공판장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서정우 신성기업
박진 진보상사	배성혁 DIMF조직위원장	서정욱 광고회사 MSC
박진숙 동일가구	배영호 (주)영신에프엔에스	서정원 (주)대선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박진향 어번라이팅	배인규 한남라이팅	서종균 대경전력
박진환 유에이디	배인호 성호건설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박찬력 경북봉투사	배장수 진영전력주식회사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배종길 IPM 코퍼레이션	서중호 (주)아진산업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배종찬 기성광고	서찬곤 (주)이하얀바다
박찬학 대구시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서찬교 대원전기
박창오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서철현 대구대학교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송준호 한국PIM	양종호 현대자동차
서태현 (주)산동개발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엄경록 (주)대철
서형석 투샘플레이스	송채은 부부엔젤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석경환	송춘희 아이투어	엄달현 (주)대창엠코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송해선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선명환 (주)썬이피에스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엄용선 (주)동네방네소식
성경환 성경건설	신경우 (주)부창솔라	엄재국 (주)포맨
성달표 현대통상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성무용	신기영 ARSTOMA	여승훈 상록수재단
성병철 (주)디자인JSP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여준혁 여성메디파크 병원
성부영 정일건설(주)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여태용 세계주류
성석훈 (주)대덕건설	신성필 (주)세양	여영숙 삼성생명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신연화 밸런스워킹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성순화 피플라이프	신영필 주노캐피탈	오기우 (주)엘리건스
성정화 (주)뉴프라임	신용범 (주)한미산업	오무선 OMS뷰티살롱
성정용 (주)신도시건설	신재열 (주)안다미로	오순덕
소정호 미래테크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오재완 한국 키네티코 엔지니어링
손동태 미래테크	신정원 (주)한국센터 IT여성기업인회	오진섭 오진섭세무사사무실
손동현 동현케이블	신철균 다모 건축사	오택근 더좋은병원
손민호 동서가스	신철수 에나인더스트리	우경호 제일약품(주)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	신호철 플러스메드	우덕구 (주)진성물류
손상명 신아개발	신화섭 여행박사	이상현 더블유병원
손상주 천하장사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손성태 성진포머	신희영 보험회계법인	우승민 스포츠와
손수완 (주)수경	심건희 (주)천치재건	우승수 대구부고
손영훈 성도팩	심상형	우영제 (주)한영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심왕국 대운포장	우외태 유화 비엔피
손인락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우종곤 영인이엔씨
손인택 (주)서한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손주옥 한국재무설계	안성용 (주)앤디스코나	유병완 사진작가
손중배 (주)유레카	안용모 경일대	유효정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경산점	안조셉 (주)미래테크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손형문 대진렌탈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윤귀자 삼성생명
송남희 본죽 시지점	안준태 예진건설	윤남수 (주)아석전기
송대선	안태현 태현전력	윤민환 CMK FOOD
송미향 현대미주여행사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윤영만 명성주택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양대석 약령시 사람들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송원배 (주)대영씨앤티	양승섭 (주)대경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송정우	양승혁 인문사	윤종현 수성문화원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사	양은지 약사	윤주석 주순개발주식회사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윤창권 그린에어시스템	이무철 금용기계(주)	이영순 부부엔젤
윤창섭 골든비	이문열 대신공영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이민화 (주)백강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윤태경 바로보병원	이민희 키친씨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이배 재불화가	이영호
은영기 한솔개발	이병우 HOTEL 여기어때 대구역점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의사회축구단	이병준 (주)남양산업개발	이용재 석문전기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원영 (주)평산개발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이복환 군민신문	이원우 한은이앤씨
이강하 (주)아스코	이복희 광덕전력	이원찬 (주)아진산업
이경곤 (주)유성기초	이상길 대구광역시	이윤한 그린사이언스
이경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이상락 대구시	이윤환 미래테크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윤희 한국알카리수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상열 싸유컴퍼니	이은수
이경훈 웨미리회원권 거래소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은준 SJ홀딩스
이관형 대원상사	이상택 매일신문사	이웅찬 (주)건화
이광해 아사다라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이익재 (주)세신정밀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상홍 팔공인터내셔널(주)	이인선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상호 (주)비보건설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이기환 거한건설 주식회사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이재남 DGB생명
이대영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재덕 금성가구
이대우 기운산업	이석환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선찬 진성테크	이재익 가람테크
이덕록 (주)서보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성구 이앤김연하내과의원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성도 주식회사 부광	이재하 삼보모터스(상공회의소장)
이돈관 (주)우수	이성동 금보건설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삼익HDS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성배 (주)에가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동관 매일신문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동균 군월드	이성태 (주)풋살스포츠클럽	이재훈 푸드원
이동명 (주)자비스	이성하 BL성형외과	이정미 아사무역
이동섭 영남장애인신문사	이소윤	이정주
이동성 (주)홍맥 건축디자인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정현 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승민 리알홀딩스	이정훈 (주)TPC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승민 벨류마크 한경금융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동원 현대자동차앞산지점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종경 도원
이동현 (주)우행주 건축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종만 미전커텐
이두원 (주)DRK	이시연 DESIGN GRROUP KHAN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
이명욱 (주)이원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종운 덕재건설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양구 (주)에코텍	이종원 KOG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이종현 (주)퓨리치	인재현	장재태 영대ROTC동창회
이주현 엘플러스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이주형 (주)엘컴	임광호 열린치과	장정숙 (주)지원환경
이준근 SSLM주식회사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이준철 태영전기	임병욱	장종욱 아곱의 집/배드민턴협회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임상택 위드고	장팔술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원호금속(주)	임상훈 엔티엘 의료재단	장팔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이중호 (주)세신정밀	임영미 DGB 생명	장혜정 백산부동산
이지언 운경재단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장홍석 대원기계
이지완 명진BS치과	임용규 브라이튼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이진백 지앤비 오토모빌(주)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임재형 (주)원규	전성렬 동양OA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임창광 KOG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이진호 풍산기연	임흥규 (주)대평산업개발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전영호 팔공신협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장기석 주호산업	전용수 (주)신동아관광
이창두 알파메틱	장기식 JCI	전익상
이창영 만촌1동성당	장기철 부강철강	전재관 한의원
이창환 (주)토담건축사	장길화 (주)세안정기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장도미 (주)Queens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이천기 국제자산신탁	장동렬 경산산업	전진길(영제)(주)다원이앤씨
이충경 JUWEL J	장민우 (주)대영금속	전태제 대구CC
이충곤 SL주식회사	장병배 상인성당	전해영 화인건축사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장병환 삼보이데아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정경용 민초심
이태훈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장성태 대한개발	정군섭 (주)대영산업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정규익 가구점
이한일 드림병원	장세철 (주)고려건설	정기욱
이헌 (주)두강, 코디박	장수미 부부엔젤	정기은 분홍빛병원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장안중 석문전기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이현득 변호사 사무실 이현득	장연배 보광테크	정모경 정원자카텍
이형선 지성건설(주)	장영자 (주)하이리빙	정민교 대영모던텍(주)
이형원 일성침장	장용호 (주)나라산업	정병창 세종건설
이형주 지엠 솔루션(주)	장우영 대구보건대학	정병환 대구시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장원규 (주)화성	정성인 (주)GJ에셋
이호경 (주)대영에코건설	장원용 대구시	정성훈 (주)헬피니스
이화선 화선(주)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정소영 (주)창성산업
이희도 (주)우성피엔에프/아진주철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정수현 팔선생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장재철 AIG어드바이저	정승진 한국OSG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정신유 (주)에이치디패널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정에스터 갤러리제이원	조영래 (주)원형디앤씨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조영만 (주)제이에이치	최동욱 (주)한라개발
정영만 제이아그로(주)	조용호 (주)어팩시스템	최두원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조장형 나래피움	최만수 인터볼고CC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최명수 (주)오성종합주류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조정욱 두손건축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무소(주)
정용화 빠리바닷가제	조종수 (주)서한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최미애 (주)뉴니케
정우필 (주)서한	조준호 (주)태일	최상대 화진기공사
정원호 (주)삼화봉재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정일균 (주)다운시스템/대구스쿼시협회	조철래 성지여행	최석훈 남산병원
정창화 주성안전기	조혁준 스카이스튜어디스학원	최선주 (주)연호개발/제이엠지개발
정재간 대구대학교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최성문 크레텍 책임
정재석 주식회사 탑메디케어	조혜림	최성욱 (주)책임전력공사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최성중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주윤수 토정건설(주)토정개발(주)	최성주 (주)동진금속
정정아 국수꽃이피었습니다	주진현 하늘나리	최세욱 (주)우경정보기술
정찬두 세기리텍(주)	지용호 (주)대한공조	최순미 (주)인터볼고여행사
정태경 (주)대성건업	진경훈 (주)코앤큐	최승규 이에스티산전
정태일 (주)한국OSG	진광석 진성축산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진덕수 (주)대흥코스텍	최영철 (주)삼코
정택수 매일애드	진영환 삼익 THK	최영호 대구시
정하용 동진에스피/특수인쇄	진혜윤 보강디엠에스	최영훈 KT텔레캅
정한채 청운신탁	차성범 (주)삼인프라임F	최예영
정현수 (주)보극이앤씨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최오원 (주)이렌트카
정호균 메디피아	차영규 민영산업	최용석 빠른 감자탕
정홍표 (주)홍성건설	차영진 제일کم	최우각 대성하이텍
조규현 대명건축사사무소	차인석 대성엔팍스	최우영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차훈일 (주)샘초롱농업회사법인	최원식 건축소사무소 리더
조동희 향우회뉴스	천용구 (주)가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조두석 (주)애드메이저	천자우 (주)예술린	최은석 의사회
조득환 (주)금강알텍	천중열 (주)윤성건설	최익진 (주)풍국면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천중태 소천도예원	최인철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조민규 프로골퍼	천항구 연세클리닉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조민성 동영염직(주)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일경 명문텐탈
조병래 디자인해밀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조봉준 동일	최경수 삼익테크	최재호 (주)골든크라उन
조선웅 유마스팀 메디컬 그룹	최고현 MBC	최재홍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최규락 동양이엘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수 에이엘테크	최길영 대구교통연수원장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구 FC 엔젤클럽 명단

[2019.1.19 이후 신입엔젤]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성명회사명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함동호 에듀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최주희 변호사	허성규 우진시스템	장철광 (주)유일
최준혁	허용훈 건화트렐러보그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허원희 HK GOLF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허정수 명진약품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셋	
최철환 광풍 퍼니처	허진걸 (주)영산전기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허태조 (사)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허필수 동성중공업	
최해동	허홍만 명성골프	
최현희 (주)아르데코무이	현대백화점 대구점	
최효욱 (주)월성주택	현용환 (주)유성철강	
최홍로 흥아공업사	현정규 (주)영진기공	
추승철	홍덕률	
추화엽 대성크린텍	홍민수 WOORAM	
코바체프 대구시향	홍석준 대구시	
태영경 물리치료사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표병관 (주)지에스탑	홍영돈 에스와이패널(주)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홍영호 바른로지웍스	
하석배 계명대학교	홍장현 (주)뉴영남인테리어	
하승우 하승우 내과	홍진수 세인트나인	
하윤수 한국공조	홍철자 부부엔젤	
하정식 서보정밀	홍효정 부부엔젤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황세영 매천축산/초원한우	
하중범 더 포스코샵	황영 푸르맘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하충호 플러스کم	황인혁 인성데이터	
하태욱 에스케이앤씨(주)	황재범 오리여인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황정철 제우스프링	
하호만 농협 두류지점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한금재 (주)한국테크	황종길 (주)성신내장건설	
한금재 케이프린텍	황주연 한솔해피너스 대구수성센터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황현호 인터테크주식회사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한성교 (주)한빛 알앤디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려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무료급식 및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ufell
우방 아이유셀

2014~2017 국가소비자중심
4년 연속
브랜드대상 수상
http://dongdaegust.iusell.co.kr

쏟아지는 찬사! 다시없을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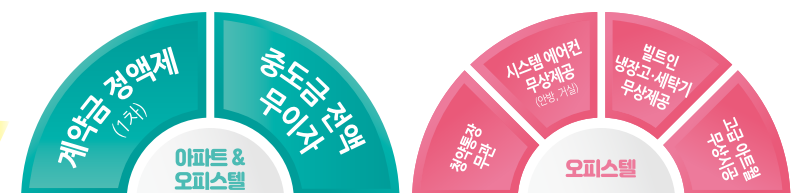
2019 청약률
대구 1위 **463:1** 84D㎡
청약 경쟁률

동대구역 프리미엄 맨 앞자리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셀



성황리
공개중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셀만의
Special 혜택!



동대구역 초역세권
신세계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비즈니스밸리

1호선 동대구역, 3호선 (가칭)엑스코선(계획)으로 더욱 편리한 역세권 환경
 백화점, 아쿠아리움, 주라지테마파크, 영화관 등 한곳에서 즐기는 복합쇼핑문화공간
 KTX, 고속버스, 대구권 광역철도(예정), 중앙선 복선전철(예정)까지 이용 가능
 상공회의소, 법원 등 비즈니스 법조타운과 금융타운 인접한 투자중심지



시행사 동대구 신천3동 지역주택조합 | 시공사 SM하우징 | 업무대행사 (주)다온플러스 | 자문관리사 아시안스타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사진,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및 사용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투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외관 및 컬러, 주동 원리, 지형 디자인, 재료, 커뮤터 시설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가칭)엑스코선(계획), 대구권 광역철도(예정), 중앙선 복선전철(예정) 등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관계기관의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 무관합니다.

총 575세대
아파트 전용 59㎡/84㎡ 322세대
오피스텔 전용 49㎡/50㎡ 253실
문의 053) **762-9922**